
2015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5 ANNUAL REPORT

2013
2014
2015

2015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5 Annual Report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Tel. 02 398 7700 Fax. 02 730 3313 www.kicce.re.kr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Contents

I 연구소 소개

- 006 설립목적
- 006 주요기능
- 007 비전
- 008 연혁
- 010 조직도
- 011 일반현황

II 2015년도 주요연구

기본연구

- 014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권익 보호 실태 및 증진 방안
- 016 어린이집·유치원 맞춤형 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 018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 연구
- 020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활용 방안
- 022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 024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III)
- 026 농어촌 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실태 및 개선 방안
- 028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수요 예측 및 재정 지출 전망
- 030 국제비교를 위한 유아발달 평가 기초연구
- 032 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조기 외국어 교육 효과를 중심으로
- 034 국내 육아지원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

일반연구

- 036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 038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 040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V):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 현황 및 개선방안

- 042 「3-5세 누리과정」개편 방안 연구
- 044 「3-5세 누리과정」의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방안
- 046 「3-5세 누리과정」운영 및 이용 실태와 정책 효과 분석
- 048 영유아교사 인성 평가 도구 개발 및 교육 강화 방안
- 050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III)
- 052 지역특성을 고려한 보육비용 산출 연구 2015
- 054 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 056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연구(I):
장애 영유아를 중심으로
- 058 한국아동패널 2015
- 060 한국아동패널 2008-2014 자료 심층 분석 연구

협동연구

- 064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 066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
어린이집·유치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간환경 조성 방안
- 068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
어린이 통학차량과 교통환경의 안전성 확보 방안

수시연구

- 070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격차에 따른 지역 유형화 연구
- 072 교육과정 우수 유치원 심사지표 및 매뉴얼 개발:
창의·인성 교육을 중심으로
- 074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운영 현황과 평가
- 076 공공형어린이집의 성과 평가 및 발전 방안 연구
- 078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역할 제고 및 참여 활성화 방안:
인친광역시를 중심으로
- 080 지역별·유형별 어린이집 수급 현황 분석 및 전망
- 082 인성교육 우수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범사업
(2012-2015년) 성과 분석
- 084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CCTV의 설치 및 운영방안:
유치원·어린이집을 중심으로
- 086 유아교사의 통일인식 실태와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개발적립금연구

- 088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실태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
- 090 유아기 건강증진 지원방안 연구:
신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III 2015년도 행사·간행물

주요행사

- 094 육아정책 심포지엄
- 095 선진육아지원네트워크 운영: 협의회
- 096 선진육아지원네트워크 운영: 육아선진화 포럼
- 097 국제세미나
- 098 협동연구 공동 정책세미나
- 099 학술대회

주요 간행물

- 100 육아정책 Brief
- 101 KICCE Policy Brief
- 102 Issue Paper
- 103 육아정책포럼
- 105 육아정책연구
- 107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109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IV 2016년도 연구사업

2016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 112 2016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 113 중점연구사업

2016년도 사업개요

- 114 기관고유사업
- 117 일반사업
- 119 2016년도 연구사업 총괄표

2015년에는 영유아가 행복한 안전한 사회 환경의 구축과
 교육·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육아지원 내실화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대한민국 육아지원정책의 발전을 위해 2005년 설립된 이래 국가 영유아 정책에 기초가 되는 유아 교육 및 보육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자녀 양육 전반에 걸쳐 시의성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등 육아정책연구를 선도하고 미래 지향적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국정과제인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무상보육 및 무상보육 확대', '아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에 부합함과 동시에 유아교육·보육 통합 및 유치원·어린이집 협력, 육아지원서비스 질제고, 미래 인적자원 육성, 출산력 제고와 부모지원 등의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사 권익 보호 실태 및 증진 방안, 맞춤형 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 조부모 영유아 손자 양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육아물가지수 등의 기본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연속과제로는 보육·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표준보육·유아교육비 산출, 3-5세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일·가정 양립지원, 취약계층 육아지원 방안,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육아정책연구 뿐만 아니라 선도적 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정부부처와 학계, 그리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이슈와 연결하는 동시에 핵심 쟁점에 대해선 각계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가 모여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했습니다. 연구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서 육아정책 Brief, 육아정책포럼 등 정책현안에 관한 다양한 간행물 발행과 함께, 온라인서비스와 SNS 활동을 통해 연구소 소식, 국내외 육아정책 동향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국제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학술대회 등 연구과제 관련 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를 총 21회 개최하는 등 육아관련 정책 현안에 관한 정보 공유와 의견을 나누고, 학술연구 결과 발표와 교류·논의의 장을 마련 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양질의 가정 내 양육을 담보할 수 있는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올해 완료 예정인 유보통합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유보통합 정착 실행방안, 갈수록 심화되는 영유아기 사교육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안과 함께,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연구를 중점연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육아지원 관련 정책연구, 부모지원 관련 연구, 육아 데이터 구축 및 분석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합리적 정책방안 제시와 관련 정책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과 육아 지원 방안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육아지원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책연구기관 으로서 육아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지난 해 연구에 주목하여 주시고, 올해 추진하는 연구과제와 각종 사업들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 남 희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5 ANNUAL REPORT

I

연구소 소개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과 보육, 육아지원 정책연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으로
한국 육아정책의 Think Tank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
주요기능
비전
연혁
조직도
일반 현황

설립목적

purpose of establishment

국가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 연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육아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

주요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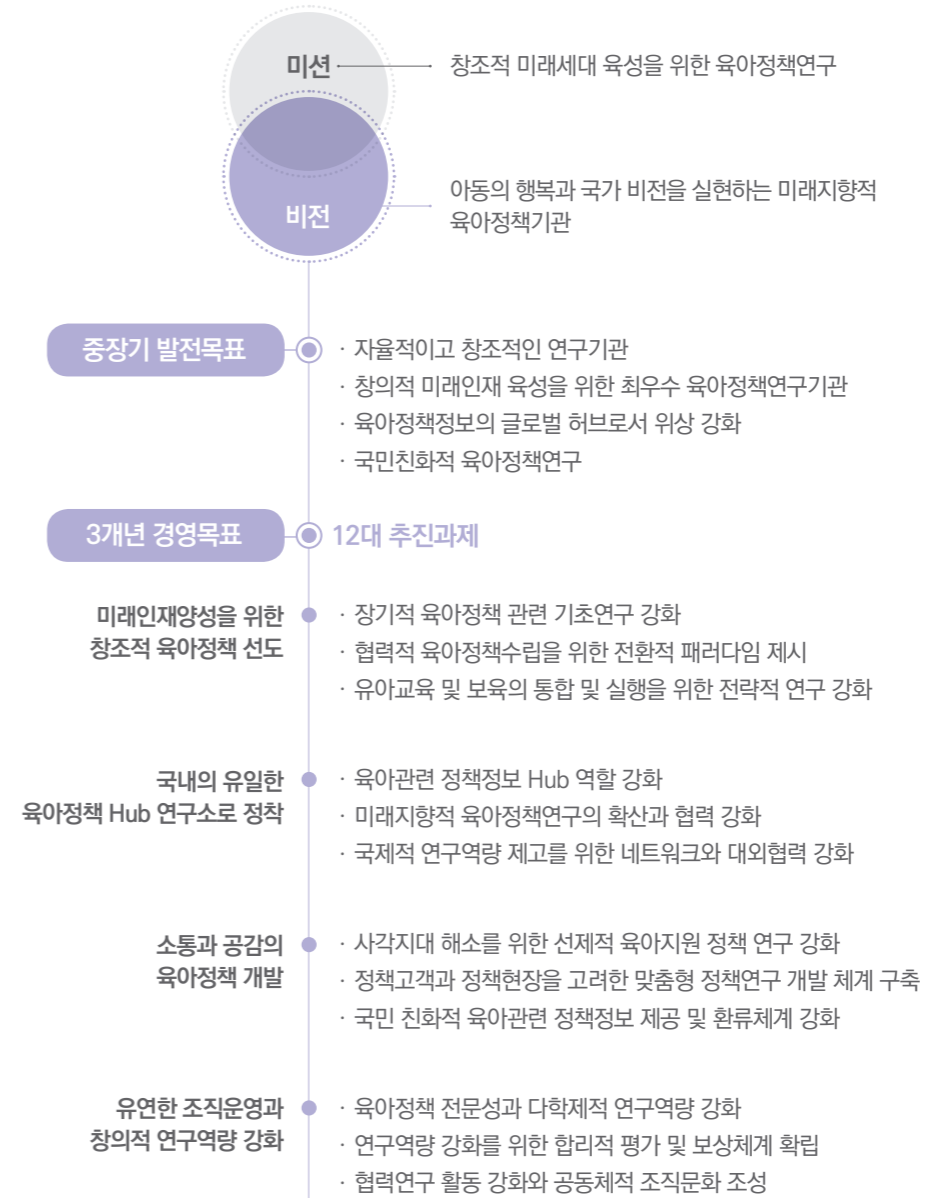
main function

- 1 육아정책 방안 연구
- 2 육아지원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3 육아지원 기관의 평가 및 자문
- 4 육아지원 인력의 자격제도 관리 및 교육
- 5 육아정책 관련 국내외 정보·자료의 공유 및 관리
- 6 육아정책 관련 국제 협동연구 및 교류 협력
- 7 정부의 육아정책사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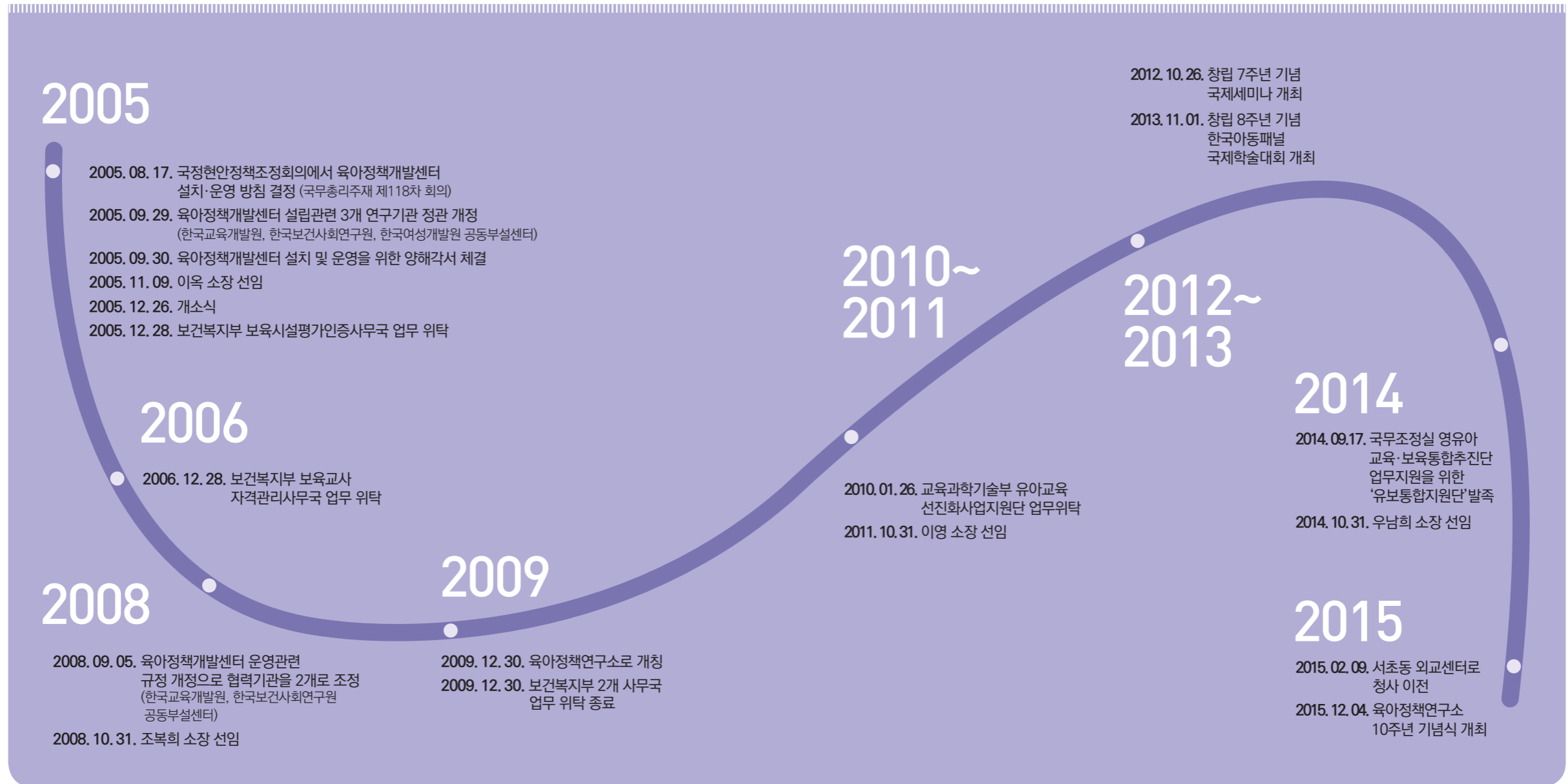
비전

vision

영유아와 가족이 행복한 육아선진국으로의 도약, 육아정책연구소가 창조적 육아정책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육아정책의 발전과 영유아의 행복을 위해 지난 11년간 힘차게 내딛어온 걸음,
국가미래를 향한 도약은 계속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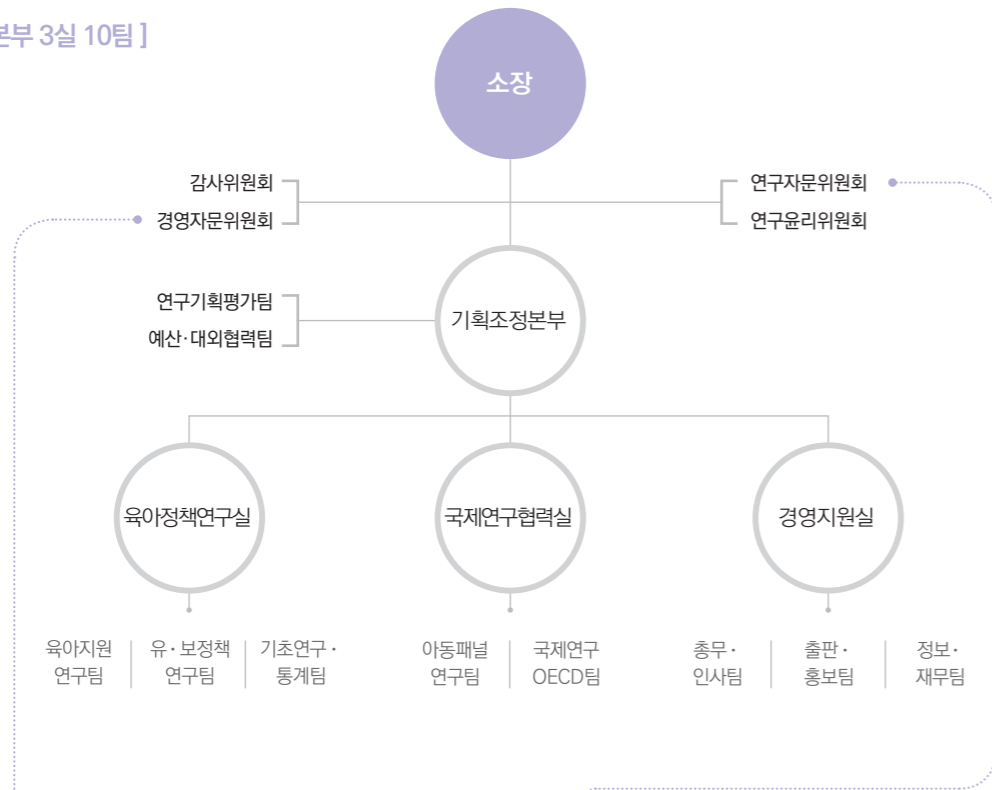


조직도

organization

연구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연구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는 1본부, 3실, 10팀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1본부 3실 10팀]



경영자문위원회

- 김병국 자문위원(고려대 정책대학원장)
- 김인철 자문위원(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 김혜숙 자문위원(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 민경찬 자문위원(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은기수 자문위원(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이순형 자문위원(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 하연섭 자문위원(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하정훈 자문위원(하정훈소아과 원장)
- 황종규 자문위원(변호사, 한국모노레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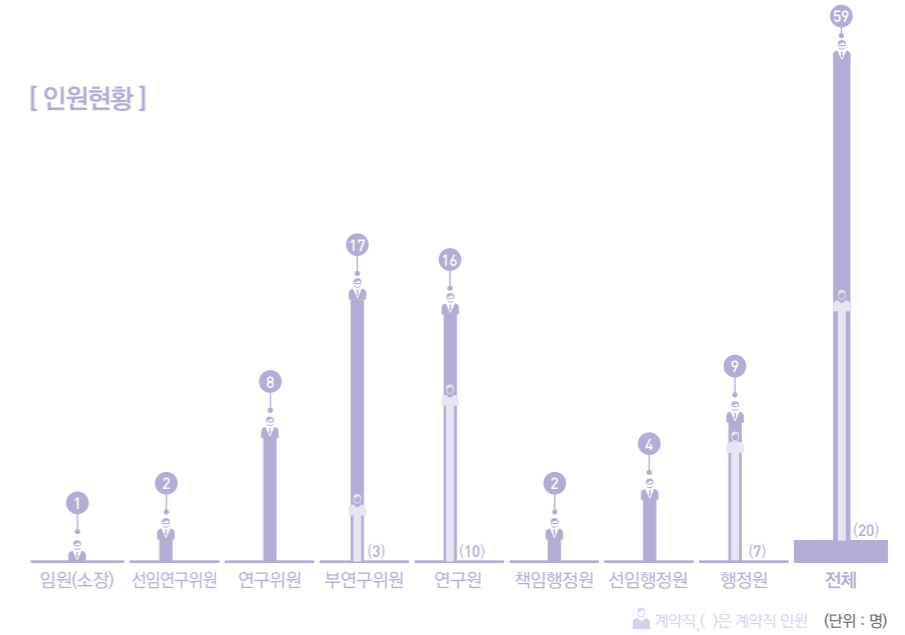
연구자문위원회

- 지성애 위원장(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
- 강상진 자문위원(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 김영옥 자문위원(전남대 유아교육과 교수)
- 김종해 자문위원(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혜란 자문위원(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박경자 자문위원(연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 서영숙 자문위원(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 손승영 자문위원(동덕여대 교양교직학부 교수)
- 이종희 자문위원(동덕여대 아동학과 교수)
- 조복희 자문위원(경희대 아동가족학과 명예 교수)

일반현황 (2016. 03. 31 기준)

general

[인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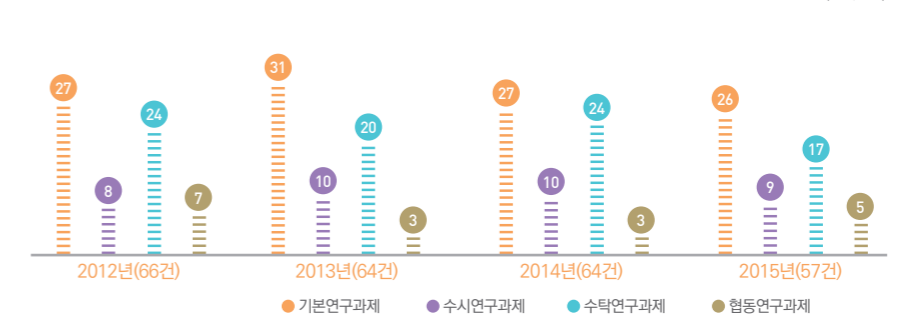


[예산현황]

구분	2015 예산(A)		2016 예산(B)		증감(B-A)		
	액	%	액	%	액	%	
수입	정부출연금	6,667	74.4	6,819	77.8	152	1.7
	자체수입	1,517	16.9	1,544	17.6	27	0.3
	전기이월금	610	6.8	340	3.9	△270	△3.0
	연구개발직립금	171	1.9	62	0.7	△109	△1.2
합계	8,965	100.0	8,765	100.0	△200	△2.2	
지출	인건비	2,714	30.3	3,187	36.4	473	5.3
	연구사업비	5,047	56.3	4,278	48.8	△769	△8.6
	경상운영비	448	5.0	453	5.2	5	0.1
	시설비	585	6.5	783	8.9	198	2.2
	연구개발직립금	171	1.9	64	0.7	△107	△1.2
합계	8,965	100.0	8,765	100.0	△200	△2.2	

(단위 : 백만원)

[연구현황] *연구사업일 기준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2015
ANNUAL
REPORT**

II

2015년도 주요연구



국가 육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보육 관련 기본, 일반, 협동, 수시, 수탁, 연구개발적립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연구
일반연구
협동연구
수시연구
연구개발적립금연구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권익 보호 실태 및 증진 방안



김길숙, 문무경, 이민경

▶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루어져야 할 내용과 범주를 정하고,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권익이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지 관련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또한 교사 권익에 대한 교사 인식, 근무기관별 교사 권익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여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방안 및 로드맵을 제공하고자 함.

▶ 연구방법

- 선행연구와 관련법을 분석하여 교사 권익 관련 내용을 파악함.
- 유치원 교사 601명, 어린이집 교사 906명을 대상으로 교사 권익에 대한 법·제도 인식,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 연구결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권익 관련 법·제도

- 유치원 교사의 경우 신분보장과 불체포특권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본 연구에서 분석한 권리 범주 중 가장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 파악됨.

교사의 권익에 대한 법인식, 권익 실태 및 요구

- 공립 유치원 교사들이 사립 유치원 교사나 어린이집 교사에 비해 법에 보장된 교사의 권익에 대한 사항들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유치원의 경우 연수를 수료한 교사들의 비율이 89.9%인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69.4%만이 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총급여액은 100만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으며 가정 어린이집 교사들의 약 56%가 월급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 교사의 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 33분, 어린이집 교사는 9시간 59분으로 교사의 약 50~70%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피로를 느끼는 일이 많다고 응답함.
-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여부 조사 결과, 유치원 교사의 76.0%, 어린이집 교사의 94.3%가 정기검진을 받는 것으로 응답함.
- 가혹, 부당행위 경험 여부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유치원 교사 10.4%, 어린이집 교사 10.6%로 유사하게 나타남.
- 업무관련 단체 가입 여부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유치원 교사의 경우 35.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어린이집 교사들은 3.2%로 낮음.
- 교사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해, 유치원 교사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육권 및 자율권(58.9%)이, 어린이집의 경우 근무여건 및 생활보장 요구권(50.8%)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함.

▶ 정책 제언

- 사회의 교사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사의 권익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권익 수첩 발간
- 보육교직원 구분 및 역할 명시, 보육교사 대상 '신분보장권 및 불체포특권'법으로 추가 보장, 교사 업무 수행을 위한 권익 범주 순차적 강화를 통한 교사의 법적 지위 확립
- 효율적인 교사 업무 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및 제도 관련 정책적 지원(단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한 대체인력 문제 해결/ 해외 연수 기회 확대/ 성인에게 맞는 시설과 휴식 공간 마련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제도화/ 수석교사제 확대 및 보육전문직 체계 마련)

어린이집·유치원 맞춤형 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양미선, 배윤진, 김정민

▶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어린이집의 시간연장형 보육과 시간제보육, 유치원의 방과후과정과 온종일 돌봄교실 등의 운영 및 이용 현황, 애로, 요구 등을 파악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여 영유아 맞춤형보육과 방과후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시간연장보육 어린이집 621개소, 교사 601명, 24시간보육 어린이집 64개소,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135개소, 담당교사 142명, 방과후과정 유치원 452개원, 교사 371명, 온종일돌봄교실 유치원 133개원, 교사 135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 연구결과

시간연장보육

- 시간연장반은 어린이집 1개소당 평균 1.9개반, 이용 아동은 평균 8.7명으로 영아 4.4명, 유아 4.2명, 이 중 맞벌이가구 자녀는 88.2%임.
- 시간연장보육이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85%이고, 도움정도는 평균 4.0점(다소 도움됨)임.

24시간보육

- 24시간보육 이용 아동은 1개소당 평균 4.3명, 영아 1.9명, 유아 2.4명으로 유아가 많음.
- 24시간보육이 자녀양육 부담경감에 효과적이라는 비율은 81.3% 동의 정도는 평균 4.3점임.

시간제보육

- 시간제보육 운영기관 수는 2015년 8월말 기준 총 179개소로, 어린이집이 139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38개소, 기타 기관이 2개소임.
-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의 운영시 어려움으로 홍보의 어려움이 43.7%, 이용자 확보 42.2%, 회계 관리 및 정리 37.8% 순임.

유치원 방과후과정

- 방과후과정 이용 유아 중 맞벌이가구 자녀는 67.7%, 학급당 맞벌이가구는 평균 68.1% 정도임.
- 방과후과정이 맞벌이 부모의 자녀양육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93.3%이고, 도움정도는 평균 4.6점(매우 도움됨)임.

유치원 온종일 돌봄교실

- 온종일 돌봄과 저녁 돌봄 운영 비율은 각각 47.4%, 45.9%, 아침 돌봄은 6.8%로 소수임.
- 돌봄교실 운영 시 어려움은 매년 예산 감소로 인한 유치원 부담 가중이 35.3%로 높고, 경직된 운영 시간과 돌봄교실 위한 강사 채용이 각각 16.5%, 유아 및 교사 안전 문제가 11.3%임.

▶ 정책 제언

- 모든 어린이집이 시간연장보육을 운영하기보다 거점형 등 운영의 효율성 강화
- 시간연장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지원 체계 개편
- 24시간보육은 지정제에서 전담어린이집으로 운영체계를 전환
- 24시간보육 이용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연계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수요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확대하고, 접근성 및 보육환경, 서비스 질 등의 평가를 거쳐 제공기관을 재배치
- 방과후과정 이용 자격 기준 마련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 지역 및 이용 유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 연구

이윤진, 김아름, 강일규, 손기웅, 임준범



▶ 배경 및 목적

- 지금까지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이 보건·의료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면, 향후 교류협력 단계를 고려한다면 지원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남북 관계 개선 시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업에서부터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문헌연구, 북한 전문가 의견조사(53명), 일반국민 의견조사(800명), 중국 및 일본 해외출장, 심층면담조사

▶ 연구결과

국외 사례: 통일 전 동·서독 및 중국-대만

- 서독의 동독 원조는 공적 형태가 아닌 교회 또는 민간 차원에서 소규모 지원이었으나 향후 체제변화를 이끌어 내는 정치적 성과를 가져옴.
- 중국 양안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건성 중심으로 유아교육의 정례적인 학술대회와 상호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음.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 현황

- 국내 민간단체 지원이 주춤 가운데, 재외동포단체와 국제기구(UNICEF 등)에서 북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협력사업 차원에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을 실시함.

육아지원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의견

- 대부분의 일반국민(81.2%)과 전문가(96.3%)들은 개발협력 사업을 찬성하며 우리 정부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개성탁아소와 같이 남북 경제협력지구 내에 북한 근로자를 위한 탁아소 설치를 일반국민의 72.3%, 전문가의 98.7%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일반국민의 55.4%가 경험 내의 탁아소는 교류협력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통일 수준은 남북의 '자유로운 교류협력 수준'(38.5%)을 가장 많이 꼽음.

▶ 정책 제언

추진방향

- 정부는 통일을 논의하기 보다는 남북 교류협력을 우선 실천하고, 남북 격차를 줄여 나감.
- 지속가능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및 개발협력 사업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남북 관계 개선 시기별 실행방안

- 남북 관계 고착기: 제3국, 국제기구, 재외동포 등을 통한 간접 교류를 통해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을 지속해 나감.
- 남북 관계 개선 초기: 남북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개성공단탁아소를 거점으로 남북 육아지원분야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발전시켜 '남북 민관 협의체'를 구성함.
- 남북 관계 개선 중기: 남북 학술대회의 정례화, 남북 공동의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 남북 공동의 탁아소 설치·운영을 위한 TF팀을 구성함.
- 남북 교류협력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 궤도에 오르면 남북 간 이질적인 육아정책, 육아문화 격차 및 신체 발달 격차 해소, 법령·비용·교사·교육과정·운영체계 통합을 논의함.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활용 방안

최효미, 이정원, 이동하



▶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시간제 일자리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근로조건을 파악하여, 향후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간제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연구방법

- 전국의 유치원 500개원, 어린이집 500개원 총 1,0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간제 근로자 활용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또한, 해당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전일제 담임교사 578명(유치원 284명, 어린이집 294명), 시간제 근로자 403명(유치원 222명, 어린이집 181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근로조건을 조사함.
- 총 35명의 구직자에 대한 심층면담과 어린이집·유치원 현장 인력(원장, 담임교사, 시간제 근로자 등 총 24명) 심층 면담 실시

▶ 연구결과

어린이집 시간제 지원 인력 활용 실태

-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 중에는 보조교사(39.9%)가 가장 많았음.
- 어린이집 기관장들이 생각하는 1순위로 총원이 시급한 업무는 보조교사(61.5%) > 행정·사무 업무 (10.0%) > 청소·청결 관련 업무(9.2%) > 차량 지도 업무(7.7%) 순으로 나타남.

유치원 시간제 지원 인력 활용 실태

- 유치원에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 중에는 방과후 과정 담당자(34.5%)가 가장 많았음.

- 유치원 기관장들이 생각하는 총원이 시급한 업무는 행정·사무 업무(29.6%) > 방과후 보조교사 (28.3%) > 방과후 과정 업무 담당자(21.4%) 순으로 어린이집에 비해 다양한 업무에 대해 총원 요구가 있었음.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 및 요구

-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시간제로 활용하는 인력의 구성이 다를 뿐 아니라, 시간제 근로자의 업무에 따른 처우도 약간씩 차이가 남.
- 시간제 근로자들의 적정 임금에 대해서는 기관장과 시간제 근로자 사이에 이견이 크게 존재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들은 대부분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크게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정책 제언

- 인력 배치에서 시간제 인력 보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하는 업무는 보조교사와 돌봄 지원 업무 담당 자이며, 시간제 지원 인력의 배치는 기관의 규모를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증가시킴.
-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인상 및 고용 안정성 부여 등 근로 여건 개선이 요구됨.
- 유휴 자격 보유자를 활용하여 누리과정 보조교사 등으로 총원하며, 기타 지원 업무의 경우에는 지원 인력 파견제 혹은 순환 지원 인력 제도의 도입·확대가 필요함.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이윤진, 권미경, 김승진



▶ 배경 및 목적

-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은 현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면밀히 논의된 적은 거의 없었음. 전국 단위의 조부모 손자녀 양육 실태를 조사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에서 조부모 손자녀 양육지원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방법

- 1가구 내 조부모와 부모의 대응표집 방식으로 총 500가구(1,000사례)와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연구결과

가구 특성 및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

- 조부모에게 자녀를 위탁하고 있는 가정의 90% 이상은 맞벌이 가정이며 주양육자의 약 59%가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이었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500~699만원이 가장 많았고(38.2%), 약 61%가 사무직 종사자인 중산층 가정임.
- 조부모의 평균 연령은 60.45세이며 외조모가 56.8%로 가장 많음. 손자녀가 평균 생후 7.8개월부터 돌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양육 기간은 평균 21.0개월임.
- 조부모의 78.6%가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 않지만 평균 18분 소요되는 가까운 거리에 거주함.
- 양육시간은 평균 주당 42.53시간이며 자녀로부터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49.8%로 절반이 채 안되며 이 때, 월 평균 양육비는 57만원임.
-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활동보다 청소, 빨래, 성인자녀 식사준비 등의 가사일을 더 힘들어 함.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 이유

- 자녀는 “남에게 맡기는 것이 불안해서”, “직장생활(학업)을 계속하고 싶어서”,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을 원치 않았지만 “자녀가 마음놓고 직장생활(학업)을 하게 도와주려고” 맡게 됨.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 조부모 87.2%, 부모(자녀) 82.2%, 일반국민 80.2%가 조부모 손자녀 양육수당 지원정책을 찬성함.
-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어서’임.
-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조부모돌보미 서비스 중에서 부모의 60.6%, 일반국민의 63.7%가 조부모 돌보미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함.

▶ 정책 제언

정책방향

-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방안으로서 조부모-부모-손자녀 3세대 지원 정책 수립
-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으로서 맞벌이 가정의 조부모 손자녀 양육지원 정책 수립

정책방안

-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준하여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맞벌이 가정(한부모 가정 포함)의 영유아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조부모 대상으로 교육 및 수당 지원
- ‘조부모 어드바이저’를 양성하여 조부모에게 배치, 양육수당의 감독과 더불어 상담과 교육지원을 패키지화하여 제공
- 양육기술 습득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에서 조부모-부모-손자녀 3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 개발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III)

최윤경, 박진아, 우석진, 배지아



▶ 배경 및 목적

- 과거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던 가족 중심의 육아지원(예: 조부모)과 사회적 지지의 감소로 인해, 자녀양육을 시장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 소비, 이용하는 형태로 대체하는 비중이 큼.
- 본 연구는 영유아가구의 주요 육아품목에 대한 육아물가지수와 육아물가체감지수를 산출하여 가격변동의 추이를 분석하고, 육아물가 변동 및 가격 수준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탐색하여 영유아가구의 양육부담과 육아소비지출 패턴의 기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방법

- 육아물가 시장조사(온·오프라인 시장가격조사), 부모 설문조사(영유아부모 체감물가 온라인조사)

▶ 연구결과

영유아가구 육아물가지수 산출

- KICCE 육아대표품목 53개를 적용한 2015년 육아물가지수는 2014년 대비 '상승'함.
- 지출비중이 큰 유치원비(순교육비, 추가비용)의 상승이 2015년 육아물가지수(I)의 상승을 견인함. 어린이집 보육료 상승은 추가비용의 하락으로 일부 상쇄되고, 산후조리원의 가격상승이 있었음.
- 저가-중가-고가의 가격 분포의 다양성이 육아물가의 상승 체감을 완화하는 지출 여건을 제공함.
- 온라인 육아품목구입에 대한 온라인지수 산출 결과, 연간 가격상승률이 오프라인보다 높음.
- 육아물가지수의 상승이 영아보다 큼. 예방접종과 기저귀·분유 저소득층 지원이 시행된 결과로 보임.

영유아가구 육아물가체감지수 산출

- 전국 영유아부모 894명 대상 체감조사 결과, 주요 육아품목(소비재, 내구재, 서비스)에 대한 영유아부모의 가격수준체감, 가계비용부담, 가격변동체감이 모두 100보다 커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수에 비해 많음.

- 2013-2015년 연간 추이를 보면 육아품목 지출의 가계부담이 줄어드는 추세임. 육아지원의 주 효과 인지, 저물가 기조 속에서 저가 상품군 위주의 소비패턴의 영향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유아자녀를 둔 가구보다 영아자녀 가구에서, 저소득/중소득 가구보다 고소득 영유아가구에서 가격 수준이 높다는 부정체감이 좀 더 많음. 고가제품을 선호하는 소비행태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 육아 상품품목(육아필수소비재)의 가계부담도는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부정적 체감이 높음.
- 주요 육아품목의 높은 물가수준에 대한 부담이 큼. 특히 문화오락비(카세트, 유모차, 장난감, 승용물)와 의료보건비 지출 부담이 큼.

▶ 정책 제언

- 통계청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영유아가구 육아물가지수 산출 및 공표의 필요성
- 육아지원설계의 변화: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비용지원에서, 육아지원 전반의 질적 제고로의 전환
- 양질의 중저가 육아필수재 생산업체에 대한 육아친화인증 및 세제지원: 착한가격 운영모델 인증
- 이유식과 산후조리원 등 신규 육아품목 증가에 대한 합리적 대안의 마련: 육아공동체와 육아멘토링 등 육아지원인프라(예: 육아공동나눔터)를 통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과 서비스 활성화
- 지역사회 육아지원센터 중심의 육아필수재 공유 체계 가동
- 육아지원정책과 병행되는 지원품목에 대한 가격정책의 지속 - ①가격정보 제공, ②가격상한제의 비용 규제, ③가격인상시 상승률에 대한 관리로 세분화
- 「육아필수재 물가정보공개시스템」 및 연쇄지수 산출 체계의 마련

농어촌 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실태 및 개선 방안



김은설, 윤재석, 윤지연

▶ 배경 및 목적

- 농어촌 영유아 대상 교육·보육은 시설 접근성, 질적 수준의 제고, 지리적 환경의 특이성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으므로 주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음.
- 본 연구는 농어촌 영유아에 대한 교육·보육 서비스의 운영 및 이용 실태와 그 외 양육서비스의 활성화 실태를 살펴보고, 다문화, 조손가정 증가 등 농어촌 특성에 비추어 필요한 제도상의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함.

▶ 연구방법

- 농어촌 소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 601명, 영유아 부모 601명(다문화 40명, 조손 29명 포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관 이용 및 운영 실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 농어촌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육아 지원과 관련한 기관 의 관련 업무자 76명을 대상으로 기관 운영 및 의견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심층면접도 진행함.

▶ 연구결과

농어촌 영유아 양육 가정 및 유치원·어린이집의 특징

- 농어촌 가구는 도시보다 가구원 수가 많고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이 많음. 어머니 취업의 비율이 중소 도시보다 높아 59.4%이고,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음.
- 유치원 교사는 도시보다 연령대가 높고 경력이 많으며 급여가 높으나 어린이집 교사는 그렇지 않음. 교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고 예체능과 교구 특별 활동에 교육비 지불액이 큼.

농어촌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실태

- 농촌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문화시설 부족, 학원 및 문화센터 등 교육 인프라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놀이나 학습 관련 정보부족, 야간 시간 이용 돌봄 시설 부족 등이 제시됨.

- 조손 가정 양육의 어려움은 돌봄 시간 부족, 체력적 어려움, 정보부족, 교육·보육 활동 지원 어려움, 비용 문제 등이 꼽힘.
- 다문화 가정에서는 양육비 등 경제적 문제, 양육 자신감 결여, 양육방식 갈등, 자녀와의 의사소통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함.

농어촌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실태

- 농어촌 어린이집의 급간식 조리 담당은 취사부가 73.4%이고 원장이 25.9%임. 농어촌 유치원에서 연령통합복식반을 운영하는 비율은 67.2%이고 정원총족률은 60~77%임. 어린이집은 50.2%가 연령 혼합반이며 82.3%의 정원총족률을 보임. 어린이집의 24.3%가 시간연장보육을 운영함.
- 농어촌 특성화 및 특별활동 운영에서 강사초청 어려움이 제기되고 기관간 연합하여 운영하기도 함.

▶ 정책 제언

- 농어촌 공통 우선 과제로, 시간연장 보육 및 돌봄 서비스 제공 확충, 공립유치원의 장애 및 특수 교육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농어촌 영유아 교사 처우의 개선, 농어촌 부모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강화 등을 제안함.
- 유치원·어린이집은 혼합연령반 운영 내실화 지원, 취사부 지원, 장애 및 문제행동 영유아 지원, 특별 활동 강사 공동 활용, 야간돌봄 및 휴일보육 확충, 교사 교통비 및 체류비 지원 등을 제시함.
- 그 외 조손가정 영유아 등록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분원화를 통한 접근성 제고 등을 제안함.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수요 예측 및 재정 지출 전망



박진아, 박창현, 엄지원

▶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인구 변동과 재정 지원 정책 확대에 따른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를 반영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수요를 예측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세부적인 정책 변인을 고려하여 소요 재정 지출을 전망하고자 함.

▶ 연구방법

-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연령별 이용률을 변수로 비선형 추세 모형을 활용하여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유아교육과 보육 수요를 예측하고 정책 변인에 따른 재정 지출 시뮬레이션을 실시함.

▶ 연구결과

유아교육과 보육 수요 예측 결과

- 전체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대상아수는 2015년 3,191,901명에서 2024년 3,134,078명으로 2014년 대비 74,016명(2.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각 연령별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대상아 수는 0세반이 1.4%, 1세반 1.5%, 2세반 1.4%, 3세반 1.4%, 4세반 6.8% 감소하고, 5세반은 1.1%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는 2015년 2,108,059명에서 2022년까지 등락을 반복하고 이후 약간 감소하여 2014년 0~5세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와 비교하여 2024년에 1.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유치원 이용 유아 수는 연령별로 3세 4.0%, 4세 5.2%, 5세 0.1% 증가하여 전체 2.8% 증가하였고, 어린이집은 모든 연령에서 감소하였는데 5세가 4.9%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그 다음으로 2세 4.8%, 3세 3.5% 순서로 감소함.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 지출 전망

- 재정 구성 요소별 지원 단가를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 규모는 2015년 14조 4,815억 원에서 2016년 14조 5,782억 원으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하여 14조 4천억 원 수준으로 큰 폭의 재정 지출 변동을 보이지 않음.
-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국공립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지원 체계와 비교하여 2024년 기준으로 많게는 1조 2,301억 원에서 적게는 1,305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 제언

-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와 학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및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에 걸친 자원 확보 계획이 필요함.
- 무상교육·보육 시간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고 통합적인 표준교육·보육비 산정이 필요함. 이에 따라 유아교육·보육 지원시스템을 개편하여 재정 투입의 효율화를 이루어야 함.
-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정책 사업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우선순위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국제비교를 위한 유아발달 평가 기초연구

문무경, 박원순, 임준범



▶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내·외 유아 발달과 학습 평가도구들을 검토하고 유아발달 평가 관련 국제비교의 주요 결과를 분석하고자 함.
- 평가 목적에 따른 유아발달에 대한 국제비교 및 평가도구의 개발 방안, 유아발달 국제비교 연구 수행시의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유아발달 국제비교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유아발달 평가의 국내·외 현황 및 기존 국제비교 관련 문헌 검토를 중심으로 수행됨.
- 캐나다의 EDI, 영국의 iPIPS, ARNEC의 EAP-ECD Scale, 유네스코의 MELQO의 특징 및 국제비교연구의 주요결과를 분석함.
- 국내·외 발달평가 전문가 협의회 구성과 운영 및 전문가 45명을 대상으로 유아발달 국제비교 목적 및 향후 연구수행에 대한 의견조사를 2회 실시함.

▶ 연구결과

유아발달 국제비교 평가도구 검토 및 관련 연구 주요결과 분석

- 국제비교에 사용된 기존의 유아발달 평가도구는 3~5세 유아의 총체적 발달에 대한 학습준비도 검사로 약 100문항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교사가 검사를 수행함.
- 한편, 최근 국제기구에서는 보다 나은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학습역량 및 범세계적 학습성과 추적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진전 정도를 모니터링하고자 함(예: MELQO).
- iPIPS의 경우, 학생의 학업 수행에 학교보다는 교사의 변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침을 밝힘.
- 유아의 건강, 가계소득, 부모의 흡연 및 우울은 유아발달과 학교준비도의 차이 요인으로 규명됨.

- 개도국 대상으로 언어발달 및 건강과 위생 및 안전, 문화지식과 참여 정도, 학습방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도시의 유아가, 또한 여아가 높은 발달 점수를 보임.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

- 유아발달 국제비교 목적으로 국제적 수준에서 우리나라 유아 발달수준의 현 위치 점검> 국제적 수준에서 유아의 발달과 학습 성과 비교> 적극적인 조기중재 방안 마련> 개발도상국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정보제공 및 지원 순으로 조사됨.
- 국제비교를 위한 평가도구 개발과 관련하여 적합한 연령대는 만 5세 이상이며, 비교 대상국가는 주로 OECD 중심의 선진국과 사회문화가 비슷한 동북아시아권역 국가에 국한함.
- 총체적 발달평가 안에 특정영역 평가도구를 포함하되, 집중, 추적해야 할 영역은 전체 영역 중 3개 이하로 제한, 전체 문항 중 20~30% 정도는 개별국가에서 재량으로 문항 수정 허용, 부모, 교사나 전문 평가자가 함께 하는 팀 평가체제 선호 및 검사의 동등성 확보 필요

▶ 정책 제언

- 조기개입을 위하여 학교학습의 차이와 관련성이 높은 영역을 집중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학령기 아동에 비해 유아 대상 평가는 평가시간, 평가방법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으므로, 평가의 타당도,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연구 설계 및 평가 도구 선정, 평가 시행 및 추가적 비용이 필요함.
- 유아발달 국제비교연구 수행 시 유아 연령 통제, 언어와 문화 요인, 국제적 수준에서의 평가도구 타당화 과정을 고려하여야 함.

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조기 외국어 교육 효과를 중심으로

이정림, 배윤진, 조혜주, 송요현, 고성룡, 이정희



▶ 배경 및 목적

- 조기 외국어 교육의 적절성 및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실험설계 등의 방법을 활용한 과학적인 검증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 이에 본 연구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기 외국어 교육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함.
- 조기 외국어 교육의 효과 분석을 중국어 교육을 통한 실험연구, 안구운동 및 뇌파(Event Related Potentials; ERP) 측정 실험연구 방법을 통하여 실시함.

▶ 연구방법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사이트, 국내 패널 자료 및 전국 단위 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조기 외국어 사교육 실태를 파악함.
- 중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단평가 및 사전·사후평가를 통한 효과성 분석을 실시함.
- 중국어 교육을 종료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언어의 의미 처리 민감도를 파악할 수 있는 안구운동 및 뇌파 측정을 통하여 중국어 교육 효과성을 분석함.

▶ 연구결과

조기 외국어 사교육 실태

- 보육·교육기관에서의 특별활동 중 영어는 여러 조사 중 가장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며, 한국 영유아 부모들의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교육에 대한 비용부담이 큰 것을 엿볼 수 있음.

조기 외국어(중국어) 교육 효과: 중국어 수업을 통한 중국어 교육 효과 분석

- 중국어 교육은 만5세, 초등학교 3학년, 성인(대학생) 각 연령별로 총 20명을 대상으로 주5회, 4주 연속으로 총 20회 진행함. 단, 만5세 유아는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10명을 추가 모집하였고, 수업의 진행은 교육의 효과를 위해 1그룹에 10명으로 제한하여 구성하였음.

- 4주간의 중국어 수업은 만5세, 초등학교 3학년 및 대학생 세 집단에서 모두 효과가 있었음. 중국어 수업의 효과를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로 살펴본 결과, 연령집단별로 대학생의 수업 효과가 가장 크고, 초등학교 3학년, 만5세의 순이었음.

조기 외국어(중국어) 교육 효과: 안구운동 및 뇌파 측정을 통한 중국어 교육 효과 분석

- 안구운동과 뇌파 측정 실험 결과, 아동보다는 성인이 단기적으로 동일한 양의 중국어 교육을 받았을 때 청각 및 시각적으로 의미 민감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의미 민감도 측면에서 외국어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는 성인기라는 것을 시사함.

▶ 정책 제언

- 조기 외국어 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과학적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조기 외국어 교육에 관한 정확한 지침이 마련되어 제공되어야 하며,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의 실험 연구에 대한 지원과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 조기 외국어 교육의 효과가 크지 않고 유아 시기의 권리인 놀이할 권리 등을 빼앗으면서 유아에게 조기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일 수 있으므로, 조기 외국어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재고가 필요함.
- 주의집중 시간이 짧은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영어 학원을 포함한 각종 외국어 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읽기, 말하기 위주의 외국어 교육은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으므로, 유아의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의 제공이 필요함.

국내 육아지원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



유해미, 김아름, 김진미

▶ 배경 및 목적

- 육아지원정책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제고 등 효과성이 의문시됨에 따라 2006년 이후 육아지원 전반의 방향 및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2005년 이후 육아지원 전반의 방향 등을 명시한 각종 기본계획 및 정부 보도자료 등을 조사함.
- 전국 지역의 영유아를 둔 부모 총 1,045명과 육아지원 관련 부문의 전문가 총 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연구결과

국내 육아지원정책의 전개 과정

- 육아지원의 목표와 기본 방향은 2006년 이후 국가 중심 자녀 돌봄의 사회화에서 2011년 가족과 지역 사회의 돌봄 기능이 보다 강조됨.
- 주요 정책 과제는 2006년 이후 기관보육 지원에 주력하였으나, 2011년부터 가정내 양육지원, 지역사회 돌봄망 확충,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부문이 강조되고, 부모교육 등이 새롭게 포함됨.

부문별 육아지원정책의 변화

- 2009년 기관 미이용 0~1세 차상위계층 대상 가정양육수당 도입 이후 2011년 2세, 2013년 3~5세를 추가 하여 전(全) 계층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외 수당은 장애아 등에 한정됨.
- 보육료 지원대상은 1991년 0~4세 차등보육료 지원 이래 2008년 0~4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차등지원, 2011년 소득하위 70% 이하, 2013년 전(全) 계층으로 확대됨.
- 배우자 출산휴가는 2008년 유급 3일에서 2012년 무급 2일을 추가하였으며, 2008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가족친화인증제도가 도입됨.

육아지원의 평가와 수요 분석

- 영유아 부모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3.82점(매우불만족 1점~매우만족 5점으로 평정)으로 가장 높고, 육아지원에 대한 요구로는 믿을 수 있는 보육시설 26.6%, 근로시간의 조정 및 단축과 양육비 지원을 공히 25.6% 순으로 응답함.
- 정책 전문가는 보육교육비 부담 완화에 대한 평가가 3.73점(매우미흡 1점~매우높음 5점으로 평정 함)으로 가장 높고, 개선과제로는 믿을 수 있는 보육시설 37.8%, 휴직제도와 근로시간 단축 및 조정을 각각 26.5%, 24.5% 순으로 응답함.

▶ 정책 제언

- 향후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으로 부모권 보장과 아동 중심성 회복, 남성을 적극적으로 포괄한 일·가정 양립지원 강조
- 아동 연령별 기관보육의 목표 및 지원방식 개편, 중앙정부 차원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및 실천 강화, 안심보육 강화, 돌봄 취약계층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한 기관보육의 내실화
- 남성대상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통한 돌봄시간 지원의 확장
- 기관 이용과 무관한 현금지원제도 도입을 통한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 완화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유해미, 강은진, 조아라



▶ 배경 및 목적

- 급변하는 보육정책에 따라 매년 정책 현황 및 그 성과를 진단하고, 정책 과제를 모색해온 6차년 연속과제로서, 종합평가와 수요자의 성과 평가를 포괄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보육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부처의 각종 정책 자료와,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자료를 검토함.
- 전국 지역의 영유아를 둔 어머니 총 1,102명을 대상으로 보육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도움 정도, 수요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추진 실적이 높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과, 경기 성남시, 서울 강남구, 동작구,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관한 사례조사를 실시함.

▶ 연구결과

중앙정부의 보육사업 현황 및 성과

- 2014년 어린이집 수는 전년 대비 28개소가 감소하였으나 보육아동수는 9,691명이 증가하였고, 시간연장형보육은 전체 어린이집의 24.7%에서 제공되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872개소임.
- 2015년 총 보육예산은 4,943,994백만원이며, 이들 중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각각 61.7%와 22.3%를 차지함.
- 2014년 기준 평가인증 통과 기관은 49,520개소이고 인증유지율은 76.5%이며, 보육교직원 자격증 발급 건수는 총 1,379,658건이고, 1급 보육교사 비율은 50.0%임.

지방정부의 보육정책 현황 및 성과

- 2015년 국고 지원사업비는 총 7,950,73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7.6%p 감소하였으며, 지방정부의 특수보육시책 사업비는 총 1,647,594백만원으로 국고지원사업 대비 비중은 20.7%를 차지함.
- 시·도 전체 사업비는 서울시가 694,019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시·군·구 자체 사업비 규모는 경기 지역이 70,258백만원으로 가장 많음.

수요자 만족도와 평가

-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만족도는 서비스 접근성 부문이 3.86점(매우불만족 1점~매우만족 5점으로 평정함)으로 가장 높고, 부모참여, 부모상담, 교사 전문성 부문이 낮게 나타남.
- 보육사업 개선 정도에 대한 평가는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어린이집이 충분이 있다' 항목에서 가장 높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보육의 접근성 항목에서 가장 낮음.

▶ 종합 평가와 정책 과제

- 보육정책의 성과를 종합하면, 서비스 접근성 부문은 공보육 확충이 미흡하고, 양육비 부담 완화 부문은 전체 양육비 대비 제한적이며, 서비스 질 관리와 부모 선택권 보장 부문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어린이집 지역적 균형 배치 및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및 지원체계 구축,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보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접근성 제고
- 양육비용 완화를 위한 보육서비스 이용비용 일괄규제,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제도 도입
- 서비스 질 관리 및 제고를 위한 대체교사/보조인력 지원 예산 우선 배정, 보육활동컨설팅 지원 체계 강화, 어린이집 개방성 제고
- 부모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영아를 둔 가구의 선택권 강화, 돌봄 취약계층 대상 포괄적 육아지원 강화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최은영, 이진화, 김승진



▶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2014년 유아교육의 전반적인 현황을 수집하여 성과를 도출하고, 심층분석이 필요한 유아교육 정책 관련 사안을 분석하여 향후 유아교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고자 함.

▶ 연구방법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교육부 내부자료 및 시·도 교육청 보고자료 등 관련 문헌을 분석함.
-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유치원 교직원 및 학부모와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파악함.
- 유치원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현황 및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 함.

▶ 연구결과

중앙정부의 유아교육정책 현황

- 2014년 유치원 설치와 이용, 유아학비 지원, 유치원 교원, 유치원 평가, 방과후 과정 운영,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 유치원 일반 현황 및 중앙정부의 사업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2005~2014년의 10년간의 추이를 분석하여 성과와 과제를 도출함.

시·도 교육청 사업 및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 17개 시·도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현황을 알아본 결과, 지역별로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지원 예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지역이 있었으며,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도 있음.

유아교육정책 심층분석: 아동학대 현황 및 인식

- 교직원이 학부모에 비해 전체 항목에 대해 높은 비율로 아동학대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억지로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고 판단되거나, 아동이 친구들 앞에서 무안을 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교직원에 비해 학대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교직원과 학부모 모두 교사의 아동학대 인식 부족,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등을 중요한 원인으로 제시함.

▶ 정책 제언

- 유아교육의 공적 인프라 확대, 유아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배분, 교원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 질 관리 체제의 안정적 정착, 유아교육 지원체계 확대 및 역할 강화 등 유아교육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를 제안함.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제도적 기반 구축,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기관 운영지원 및 지역사회 공조 강화, 단위 유치원 차원에서는 서비스 질 제고 및 신뢰형성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함.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V):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 현황 및 개선방안

도남희, 강은진, 최지은



▶ 배경 및 목적

-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산업단지 어린이집이 증가세에 있으나 현장 근로자들의 요구와 이용 실태를 반영하지 못함.
- 산업단지 근로자의 보육 요구와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도울 수 있도록 산업단지 어린이집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문헌연구,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함.
- 설문조사는 산업단지 근로자 1,000명과 인근 어린이집 원장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 연구결과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 산업단지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은 평균 약 80% 정도임.
- 어린이집의 15.7%만이 근로자 대상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함.
- 어린이집은 외부 주거지역에 설치된 경우가 많았음(82%).
- 운영의 어려움으로 원아모집, 운영비, 보육교직원 채용 등의 어려움을 호소함.

산업단지 어린이집 이용 현황

- 근로자들은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음.
- 설치된 산업단지 어린이집 위치는 사업체 근처가 13.9%임.

- 근로자들은 산업단지 내부보다는 단지와 인접한 주거지역을 선호함.

산업단지 어린이집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

- 산업단지 내부의 어린이집은 접근성, 수요부족 등으로 원아모집이 어려움.
- 지자체의 산업단지 어린이집 추진 담당부서가 모호함.
- 공동직장 어린이집의 경우는 대기업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함.

▶ 정책 제언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 관련 개선방안

- 산업단지의 특수성을 반영한 어린이집 유형의 다양화
- 정확한 보육수요 확보를 통한 어린이집 운영 계획 수립
- 근로자의 요구 및 편의성을 고려한 위치 및 유형 선정

산업단지 어린이집 운영 관련 개선방안

- 운영지원 확대 및 지원 방식 다양화
-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운영 컨설팅 기구 및 인력 제공
- 산업단지 어린이집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강화
-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산업단지 근로자의 육아지원 강화

- 양육친화적인 문화 구축 및 인센티브 마련
- 아버지 양육 지원 활성화

「3-5세 누리과정」개편 방안 연구

문무경, 배윤진, 송신영



▶ 배경 및 목적

- 누리과정 시행 4년차를 맞이하여 선행연구와 현장에서 지적된 누리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누리과정의 총론, 각론, 해설서와 지침서, 지도서 개편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누리과정 개편의 필요성 및 요구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실시(1차에 53명, 2차에 43명 참여)
- 유치원과 어린이집 총 1,250개 기관의 3, 4, 5세 및 혼합연령 담당교사 대상 설문조사 실시
- 누리과정 부모참여 관련 개편안에 대한 수도권 거주 부모 총 2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전문가 협의회 운영(일반교육과정, 초등교육과정 및 유아특수교육 전문가 포함), 지도서 집중검토 및 개편안에 대한 지역별 소규모 워크숍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 연구결과

누리과정 개편의 필요성 및 개편 요구(전문가와 현장교원 대상 조사 결과)

- 총론체제를 초등교육과정과 일관되게 구성, 추구하는 인간상 제시, 구성방향에서 인성교육 및 정서조절 관련 내용 강조, 영역별이 아닌 누리과정 전체 목표 제시 등
- 각론에서 연령별 내용수준 개편 및 학습내용 축소, 교사가 응용·확장하기 용이하도록 개편 필요
- 해설서, 교사용 지침서 및 지도서 간 연계 부족 및 지도서 활동의 질적 편차로 인해 활용이 어려우므로 활동의 응용원리나 전략 제시 요구
- 전문가와 교사의 약 68%가 0-2세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통합 필요성을 인식

누리과정 개편안

- 총론의 구성체제를 2015 개정 초등교육과정과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 즉, 누리과정의 비전, 추구하는 인간상, 누리과정 구성의 중점, 목적과 목표 등으로 구성하고 누리과정의 성격과 학문적 기초를 명시 하도록 함. 또한 초등교육과정과 및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및 부모참여 강화 명시, 편성과 운영 부문에서 '모든 유아를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추가 및 특수유아를 위한 지각체험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 강조, 유아평가의 원칙 제시
- 각론 영역 명칭과 내용을 초등 저학년 교과 및 표준보육과정과 연계 구성, 신체운동건강 영역 명칭과 내용에 안전 강조, 의사소통 영역 목표 및 세부목표에 반복설명 축소 및 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강조, 사회관계 영역에 인성교육 내용 보완 및 구성방향에 아동의 권리의식 내용 포함 등
- 해설서는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고려 및 특수유아를 위한 교수학습방법 보완, 지침서는 지침 표준화 지양 및 자율적 활용 예시 제시, 지도서의 생활주제별 비중 조정 및 초등교육과정 대주제의 연계 구성 등
- 연계 강화를 위한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 통합과정은 각론 영역 구성 및 명칭의 적합성 검토 및 내용 범주와 수준간의 발달적 연계성을 보다 체계화하는 작업이 요구됨.

▶ 정책 제언

- “상시 누리과정 개정위원회” 또는 “개정 포럼” 운영 및 커리큘럼 전문가 풀을 확보하여 개편안의 정교화 필요 및 개편안에 대한 주요 관계집단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요구됨.
- 지역별 우수 누리과정 운영 사례 참고 및 활용

「3-5세 누리과정」의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방안

권미경, 윤재석, 조혜주



▶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누리과정 모니터링과 평가'라는 총괄과제 내 세부과제 중 하나로, 누리과정의 '가정과 지역사회 연계' 측면에 초점을 두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됨.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운용을 지원하는 가정과 지역사회 연계를 고찰하고, 유아교육·보육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미시체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여 「3-5세 누리과정」의 가정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방법

-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총 700개를 표집하여 원장, 교사, 부모 각 1인씩 2,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3-5세 연령별 누리과정」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을 분석함.
-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우수기관을 방문하여 면담을 통해 우수 사례를 수집함.

▶ 연구결과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현황

- 교사들은 가정 연계활동 구성 시 교육·보육과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우선 고려하고(54.7%), 부모들의 가정 연계 활동 희망 유형은 대부분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활동(76.2%)임.
-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참여수준은 '방문+관찰+질문+참여활동'까지 확장된다(32.1%), '방문+관찰하는 활동(26.9%)', '방문만 하는 활동(21.5%)'의 순서로 나타나, 유아의 참여가 충분한 수준에서의 지역사회 연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유아교육·보육기관과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현황

-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가정, 기관, 지역사회 영향력에 대해 가정 51.1%,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34.2%, 지역사회 12.5% 정도의 영향력을 지닌다고 평가함.

- 기관행사 주 참여자는 어머니 94.4%, 조부모 3.7%, 아버지 1.1% 순이며, 부모의 기관방문 빈도는 매일 59.0%, 한 달 2~3회 9.4% 순이었음.

- 지역사회기관 활용 빈도는 인근 놀이터, 숲, 산 등의 지역사회 내 장소가 주 1회 이상 빈번하게 활용 되는 반면 도서관, 박물관,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같은 곳은 연 1회 정도임.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한 모형 제안

- 유아교육·보육 현장에서의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실행 주체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행정 전달체계와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하는 지원체계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아 가정, 지역사회 기관을 구체화하고, 연계 활성화를 위해 담당해야하는 역할을 제시함.

▶ 정책 제언

- 연계를 위한 정책적 제도화 과정, 필요성 인식과 동기 부여, 안내 및 성공적 경험의 공유 기회 확대, 원장 및 교사 역량강화가 필요함.
- 가정연계 활성화를 위해 면대면 교사-부모 만남 기회 확대, 신입원아 위한 적응프로그램 개발, 아버지 참여 기회 마련, 가족단위 참여 기회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 능동적 참여자로서의 부모 역량강화, 맞벌이 부모에 대한 참여 확대, 가정과의 의사소통 통로 다면화를 위한 방안을 제언함.
-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지역사회 자원 정보 허브(Hub) 설립·운영, 도농 유아교육·보육 기관 간의 유대 형성 및 협력 강화, 기관과 인근 초등학교와의 연계 구축, 연계활동을 위한 컨설팅, 유아교육과 보육 기관 및 지원체계 중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함.

「3-5세 누리과정」운영 및 이용 실태와 정책 효과 분석

이진화, 박창현, 윤지연



▶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201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 및 부모의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주체들의 누리과정 정책 효과 달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누리과정 운영의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방법

-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각 700명씩, 교사 각 1,000명씩, 부모 각 1,000명 및 누리과정 전달체계(행정, 전문) 공무원 각 1,00명 총 5,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함.
- 누리과정 정책 효과에 대한 대국민 인식과 여론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5개 신문의 보도기사를 개념연결망 분석으로 그 현황을 파악함.

▶ 연구결과

누리과정 운영 현황

- 원장 응답기준 누리과정 평균 운영시간은 4.4시간, 교사 응답기준 1일 누리과정 평균 운영시간은 유치원 4.86시간, 어린이집 4.75시간으로 누리과정 운영을 대체로 준수함.
- 유치원 원장은 매해 교육청 원장 연수를 모두 이수한 비율이 55%, 어린이집 원장은 42.2% 정도이며,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는 매해 교사연수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지자체 응답에서 교육·보육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것이 업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교육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누리과정 이용 현황

- 유치원, 어린이집 기관 유형에 상관없이 누리과정의 행·재정적 내용과 절차뿐만 아니라 공통 교육·보육과정과 누리과정 적용 효과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들은 누리과정으로 인한 공통교육과정 적용, 유아학비·보육료 등과 같은 재정 지원으로 인해 기관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누리과정 정책 효과 인식

- 누리과정 초기 시행에서 이념적 차원의 논리가 많이 발견되나, 누리과정이 차츰 시행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관심은 0~5세 무상교육으로 인한 영유아기 기관 이용의 확대, 정부재정 투자 확대, 영유아기 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주된 효과 중심으로 제시됨.
- 출산율 향상을 제외한 대부분 목표에서 원장, 교사, 행정가(전문직), 부모 모두 '대체로 달성했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누리과정 주요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 원장, 교사, 행정(전문)직에 비해 이용주체인 부모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 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남.

▶ 정책 제언

- 누리과정 제도의 전문화를 위한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및 안정적 재정 지원 정책 재구성
- 자체점검과 행정 관리감독의 균형을 통한 기관의 공공성 확보
- 교육·보육과정 '누리과정'의 역사적·사회적·철학적 배경 확인
- 표준보육과정 및 초등교육과정 간의 연계
- 누리과정의 다양한 적용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연구) 사업 활성화
- 누리과정을 위한 연수 지원 체계 발전적 구성과 방안 신설

영유아교사 인성 평가 도구 개발 및 교육 강화 방안

김은설, 김갈숙, 이민경



▶ 배경 및 목적

-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의 인성 교육 실태에 대해 짚어보고, 인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이를 활용한 인성 수준 파악 및 인성 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전국 2·3년제 및 4년제 유아교육 또는 보육 관련 대학 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 22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인성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개발된 인성 평가 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함.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문항 적절성 검사를 실시함.
- 현직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1,600명, 예비 교사인 대학생 613명을 대상으로 개발된 인성 검사를 실시하여 인성 특성을 파악함.

▶ 연구결과

영유아교사 인성 평가 도구 개발

- 선행연구 인성 요소 및 문항 검토 등을 통해 인성구성요소를 추출함.
- 개발된 문항 안에 대해 내용타당도, 구인타당도, 변별타당도, 수렴타당도 및 공인타당도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신뢰도를 문항내적일치도($\alpha=.964$) 검증을 통해 확인함.
- 최종 도구는 보편적 인성과 교사로서의 인성 등 2개 영역, 8개 요소의 94문항으로 구성됨.

영유아 교사 인성교육 실태 파악

- 예비교사 인성교육에 대해 교수들은 36.3%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함.
- 양성과정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해 교사의 8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재교육에서도 90%가 필요성을 제기함.

- 교사 재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인성교육 내용으로는 교육학 분야, 정신건강증진, 사회성증진, 신체 건강증진프로그램 순으로 수요가 높음.

영유아 교사의 인성 수준

- 교사의 인성 평가 결과를 보면, 공감·정의감, 교직원, 민감성·수용성 분야 점수가 높은 편이나, 심리적 건강, 자기조절 분야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현직교사의 인성 점수가 대부분 요소에서 예비교사보다 높으나, 교직원(교사소명의식), 공감·정의감 부분에서는 예비교사 점수가 더 높음. 예비교사 또한 자기조절 점수가 가장 낮음.

▶ 정책 제언

- 인성 평가 도구의 활용성 강화가 필요함. 인성평가 도구를 표준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증거 기반한 교사 개인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어야 함.
- 교육과정의 개선이 요구됨.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적 실천을 할 수 있는 교과목이 포함되고 교사 역할 경험을 위한 실습 시간 확대, 실습에 대한 지도·감독의 강화, 인성 개선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유도가 따라야 함.
- 인성 평가 점수에 교사의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교사 업무 스트레스 감소와 근무환경 개선이 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함.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III)

이진화, 박진아, 박기원



▶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미취학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를 파악하여 기초적인 통계 자료를 생성하고,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지원 정책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연구방법

- 영유아기 미취학 자녀를 둔 2,500가구 면담조사

▶ 연구결과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및 기타 교육·보육서비스 기관 이용 비용

- 5월 한달 기준, 유치원 이용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비용 지불 아동 기준으로 157,510원이며, 비용미지불 아동을 포함하면, 133,840원임.
- 어린이집 이용 전체 비용은 지불아동기준 약 86,650원, 미지불아동 포함하면 81,130원으로 조사됨.
-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는 전체 3,075명 중 1%로 매우 소수임.¹⁾ 월평균 비용은 583,450원임. 시간제 학원 이용은 전체 평균 1.1곳, 비용은 109,580원이었고, 학습지 이용은 평균 1.7개, 비용 67,460원, 문화 센터 이용은 평균 1.2개, 비용 58,590원, 개인 및 그룹 교습(온라인 학습 등 포함)의 이용은 평균 1.1개, 비용 94,030원이었음.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결과

- 본 조사의 영유아 1인당 평균 교육·보육비용(비용미지불영유아 포함 기준)을 이용하여 통계청 2014년 12월 기준 영유아 수(2014년 12월 기준 추계인구 이용하여 보정한 추정치)로 산출한 총 교육·보육비용 규모는 약 3조 8,765억원임.

- 전체 영유아수(2014년 12월 기준 추계인구 이용하여 보정한 추정치)를 대상으로 본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산출한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7,200원이며, 총액은 1조 2,051억원으로 추정됨.
- 연간화계수를 활용한 사교육비는, 사교육참여 영유아(통계청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보정한 추정치)를 대상으로 산출한 1인당 월평균은 113,100원이며, 총액은 1조 1,648억원이며, 전체 영유아수(통계청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보정한 추정치 보정)를 대상으로 산출한 1인당 월평균은 36,300원이며, 총액은 1조 1,779억원으로 추정됨.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의견조사

- 전년도 대비 교육·보육비용은 유사하다는 비율이 높아서 정부의 원비상한제 규제, 비용 지원 정책 등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현재의 재정지원 정책 방향에 찬성하는 비율이 80%이상으로 높았고, 정부 재정지원 정책의 개선에 대한 의견으로는 전계층을 지원하되 소득수준별로 차등지원해야 한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 정책 제언

- 유아교육기관 원비 상한제 도입에 따른 관리 지도
- 영유아 시기 '사교육' 개념 정의 필요
- 방과후 과정·방과후 특성화 활동(특별활동) 운영 지침과 비용 지도 점검
- 가정 양육 지원의 재정 지원 외 육아지원 제도의 적극적 실행
- 지출 비용 차별화 해소 방안 및 국가 수준의 영유아 가구 교육·보육비용 조사 필요

1) 표집수가 전체 3,075명 중 1%에 해당하는 매우 소수이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함.

지역특성을 고려한 보육비용 산출 연구 2015



양미선, 박원순, 피재은, 이동하

▶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어린이집의 설치 주체와 운영비 지원 등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차이를 반영하여 현실적인 보육비용을 추정하고자 함.

▶ 연구방법

- 시설유형 및 규모, 지역규모 및 시도별로 계정과목별 세입·세출 규모 및 비중을 분석함.
- 어린이집 896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연구결과

- 시도 및 시군구 특수보육시책으로 어린이집이 가장 많이 지원받는 인건비 항목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97.0%)이고, 취사부 등 지원 인력 인건비 65.1%, 장기근속수당과 평가인증 수당, 담임수당 32.3%, 복리후생비 26.4%,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18.5%를 차지함.
- 급간식 및 교재교구비 등 사업운영비로 지원받는 항목은 교재교구비가 83.8%, 영유아 급간식비 47.0%, 보육교사 중식비 27.6%, 친환경 급간식비 17.0%, 우유급식비 8.9% 순임.
- 어린이집이 가장 많이 지원받는 관리운영비 항목은 냉난방비로 57.4%를 차지하고, 안전공제 가입비 32.3%, 차량운영비 23.2%, 배상보험료 10.8%, 전기가스 안전점검 수수료와 재무회계시스템 사용료가 각각 8%대 정도임.
- 어린이집이 지원받는 시설비 항목은 시설개보수비가 1/3 정도, 비품수선비나 비품 및 기자재 구입비, 시설설치비, CCTV설치비 등은 1~2%대로 소수임.

▶ 정책 제언

아동 1인당 보육비용

- 1안의 0세아 20인이 923,470원이고 50인이 99만원을 초과하며, 이후 96만원 선으로 감소하다가 169인은 947,670원임.
- 만1세는 20인 62만원에서 50인 695,800원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여 169인은 64만원임.
- 만2세는 20인 485,660원, 50인 555,490원이며 이후 감소하여 169인 이상은 507,790원임.
- 만3세는 50인 415,300원이고, 77인 이상은 40만원 이하로 떨어져서 169인 이상은 368,800원임.
- 만4세 이상은 50인이 370,600원이고, 77인과 97인이 34만원 대이며, 169인 이상은 322,900원임.

지역별 보육비용

- 0세아는 세종시가 1,031,300원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음. 서울, 인천, 광주, 경기 등은 100만원이 넘고 나머지는 96~99만원 선임.
- 1세아는 세종시가 709,500원으로 가장 높음. 나머지 시도는 66만원에서 69만원 사이에 분포함.
- 2세아도 세종시가 56만원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52~53만원 선에 분포함.
- 3세아는 세종시만 40만원이 넘고 나머지는 37~39만원 대에 분포함.
- 4세 이상아도 세종시가 35만원으로 가장 높음. 나머지 지역은 33~34만원 대로 0~3세보다 시도 간에 차이가 적음.

개선방안

- 시도 특수보육 시책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 보육비용 산정 시 지역별 물가 차이를 고려함.
- 물가 인상을 반영한 중앙 정부차원의 보육비용 산출을 정례화함.

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최은영, 최효미, 김정민



▶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표준유아교육 산출 연구의 제 3차년도에 해당하는 과제로, 기존의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방식을 검토하여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모형을 보완하여 이에 근거한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고자 함. 또한 방과 후 과정 운영에 따른 인력배치, 비용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방과후 과정 교육비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일본의 신제도인 아동·육아지원 신제도에 대해 내각부, 문무과학성, 후생노동성 담당 공무원, 유보일체형 인정어린이원, 사립 인정어린이원을 방문하여 면담함.
- 유치원 교육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규모, 설립유형, 유치원 규모별로 표집한 유치원 804개의 표본(김은설 외, 2013)을 추적하여 총 658개원(공립 213개원, 사립 445개원)의 2013년 세출결산서를 분석함.
- 방과후 과정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7개 시·도 단·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총 510개원을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 운영시간, 인력배치, 비용 등을 조사함.

▶ 연구결과

일본의 비용지원 체계

- 일본에서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소득분위별 차등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득계층 구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와 공사립 간의 비용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공·사립유치원 교육비 현황

- 공립유치원의 세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세출 총액은 4억 5,300만원이었으며, 이를 원아 1인당 월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40만 8천원임.

- 사립유치원의 전체 세출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립유치원은 평균 4억 9,780만원을 지출함. 이는 공립유치원 평균 세출총액 4억 5,300만원보다 약 4,480만원 정도 더 높은 수치임.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 2015년 표준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는 555만 7천원으로, 월평균 46만 3천원으로, 공립유치원(5,648천원)이 사립유치원(5,524천원)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유치원 방과후 과정 적정 교육비 산출

- 공립의 원아 1인당 방과후 과정 총 비용은 19만원, 사립은 21만 5천원임. 공·사립의 원아 1인당 비용은 20만 3천원임.

▶ 정책 제언

- 유보통합 등 정책변화를 고려하여 표준유아교육비 항목의 구성 요소 재검토 필요
- 비용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를 통해 산출 근거의 타당성 확보
- 방과후 과정의 수익자 부담 경비 항목 설정, 부담 비용에 대한 동의 절차 등의 강화 필요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연구(1): 장애 영유아를 중심으로

권미경, 최효미, 최지은, 김건희



▶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육아지원 정책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구체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5개년으로 기획된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연구의 첫 번째 것임.
- 누리과정의 시행, 유보통합의 추진 등 영유아 관련 정책과 환경의 변화가 급속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가족 지원과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포괄적 육아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방법

- 장애영유아의 등록, 보육·교육 현황 및 지원 현황 분석, 관련법과 제도, 국외 동향을 문헌 연구함.
- 전국 장애영유아 재원 기관 500개의 기관장, 교사, 부모 등 1,500명을 대상으로 교육·보육 서비스 및 가정에서의 양육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45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함.
- 유보통합 시 장애영유아 관련 정책 수립 방향과 장애아 초등 취학유예 문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 16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조사를 실시함.

▶ 연구결과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실태 및 지원 요구

- 2014년 기준 교육·보육기관 재원 장애영유아는 16,069명이며, 장애아전문어린이집 36.5%,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23.9%, 일반어린이집 12.5%, 일반유치원과 특수학급 각 10%, 특수학교 영아반 및 유치부에 6.1% 재원 중임.
- 기관에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는 비율이 64%, 개별화가족지원계획은 25%에 불과하며, 작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문 인력의 부족이 가장 컸음.

- 일반 유치원,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담당교사의 37%는 장애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고, 특수 학교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교사에 비해 스스로의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역량을 낮게 평가함.
- 장애영유아를 위한 인적환경 어려움으로 '교사 수급', '슈퍼바이저 부재', '보조인력 배치' 등 인력 충원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정원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도 전담교사 혹은 보조인력 지원을 희망함.

장애 영유아 가족의 육아 실태 및 지원 요구

- 장애 진단은 36개월 이후에, 진단까지 소요 시간은 평균 14.5개월 정도이며, '받아들이기'와 '정보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함.
- 장애영유아의 71.6%는 지난 1년간 사설 치료실(조기교실)을 이용하였고,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장애인복지관 이용률은 20~30%대이며, 장애영유아 가구가 1년간 지불한 비용은 약 600만원임.
- 장애영유아 부모의 34%는 취학유예를 계획하며, 주된 이유는 '인지 능력 부족'이었고, 초등학교 입학 후에 친구와 교사의 이해 부족을 우려함.

▶ 정책 제언

- 누리과정 시행 이후 차별지원 상실효과를 고려하여 등록 장애영유아에 대한 차별적 지원 강화 필요
- 장애영유아 재원 기관 유형별 지원 요구를 반영하며, 교사지원 순회 컨설팅 제도 필요
- 지자체 단위 장애 전문교사 풀(pool) 구성,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및 지원방법 표준화
- 가족 육아지원 방안으로 장애영유아 가정 역량 강화, 비장애 형제자매에 대한 지원의 제도화, 원스톱 서비스 네트워크 구성, 정보 소통, 훈련된 선배 부모와 후배 부모의 결연 프로그램 도입

한국아동패널 2015

이정림, 김길숙, 송신영, 이예진, 김진미, 김소아, 김신경



▶ 배경 및 목적

- 생태이론에 근거하여 2008년도에 출생한 아동 2,150가구의 출생 이후부터의 삶의 궤적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추적 조사함으로써, 정책 수립의 횡·종단적 근간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 2015년(8차 조사)은 대상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로, 학령기에 맞춰 조사 설계를 조율하고, 영유아기 자료를 수합·정리함으로써 향후 육아정책 설계에 유의한 논의점을 제공하고자 함.

▶ 연구방법

- 8차 일반조사(아동, 부모, 초등학교 교사 대상 설문조사 및 아동 수행검사, 가구 방문 관찰조사) 실시
- 서울 아산병원과의 MOU를 통한 병원 방문 조사(알레르기, 아토피 등의 전문 검사) 실시
- 2014년도에 실시한 7차년도 일반조사 및 영유아기 조사 결과(1~7차)에 대한 기초분석 실시

▶ 연구결과

8차년도 조사 수행

- 학령기에 적절한 도구로 기존의 도구를 수정/교체하였음. 특히 영유아기 육아지원기관 조사는 학교 조사로 대체되며 전반적인 문항 재조직을 시행함.
- 8차년도 조사에서는 전체 패널 2,150가구 중 1,598가구가 조사에 참여했으며, 전년도 대비 98.6%, 전체 패널 대비 74.3%의 표본 유지율을 보임.
- 교육부 협조를 통해 초등학교 교사 조사의 성공률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1,031명의 교사가 조사에 참여함.

7차년도(2014년 조사) 기초분석 내용

- 7차 조사에 참여한 아동은 총 1,620명으로 평균 75.1개월로 만 6.3세였음. 남아가 51.4%, 여아가 48.6%였으며, 평균 체중 22.16kg, 신장 117.15cm로 나타남. 평균적으로 수면시간 9.76시간, 보육·교육 기관이용 7.11시간, 사교육은 0.85시간, 실내 놀이 1.87시간, 실외 놀이 1.10시간의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남.
- 어머니는 평균 35.8세, 아버지는 39.3세로 취업모의 비율이 44.6%였음. 고학력, 고소득 집단에서 가족 통합을 위한 공동 노력이 더 높았음.
- 가구 구성원은 평균 4.25명으로 90.9%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450.97만원이었음. 가정환경검사의 총점은 48.58점으로 전반적으로 좋은 가정환경 요소를 갖추고 있었음.

- 육아지원서비스 유형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이 59.6%, 어린이집이 34.7%, 반일제 이상 학원이 5.6%였음.
- 가구의 거주유형은 아파트가 71.2%였음. 지역사회의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 편리성 및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은 보통 수준이었음.
- 육아지원제도의 도움 정도는 보통 이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많은 필요성을 인식함.

영유아기(2008~2014년 조사) 주요 변인 추이 분석 내용

-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보육·교육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과 학습활동 시간은 증가하는 반면, 실내 놀이나 바깥놀이 및 외출 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어머니의 취/학업 비율은 매해 조금씩 증가하였으며,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 지원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정환경의 질은 대체적으로 양호함.
-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였으며, 만 3~4세는 어린이집을, 만 5세 이후에는 유치원을 더 많이 이용함.
- 지역사회의 육아지원기관과 사교육 기관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부족하다는 인식이 증가함.
-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해 어머니들은 육아지원서비스와 일-가정 양립제도를 모두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정책 제언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 및 가구 소득 등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 제공을 위해 거주하는 공간의 주거환경 및 생활습관이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족 간 상호작용이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저소득 가정을 위한 지원과 배려가 요구됨.
- 육아지원기관 내의 특별활동에 대한 국가적 관리와 관심이 요구됨.
- 영유아 시기의 문화적 인프라 이용에 대한 지역 격차 해소가 필요함.

한국아동패널 2008-2014 자료 심층 분석 연구



이정림 편

▶ 배경 및 목적

- 한국아동패널의 중단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 내용과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관련 학계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문헌 및 통계 자료 수집·검토, 전문가 리뷰 및 학술대회 발표

▶ 연구결과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만5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영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횟수가 많을수록 만5세 때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 영아기와 유아기를 통틀어 전혀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은 집단이 한 시기라도 사교육을 이용한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임.
- 영아기와 유아기 모두 사교육을 적은 시간 경험한 경우가 한 시기라도 사교육을 오랜 시간 경험한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임.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문화인프라 이용빈도가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증가는 온정적 양육행동의 감소와 관련되었으며, 온정적 양육행동이 증가할수록 자녀와 함께 지역사회 문화 인프라를 이용하는 빈도가 증가함.
- 아동의 사회적 기술은 어머니의 온정적, 통제적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는 물론 지역사회의 문화 인프라 이용 경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사립유치원의 전체 세출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립유치원은 평균 4억 9,780만원을 지출함. 이는 공립유치원 평균 세출총액 4억 5,300만원보다 약 4,480만원 정도 더 높은 수치임.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탐색

- 유아의 학습준비도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낮을수록 높았으며, 성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어머니의 학력, 온정적 양육태도, 성별이, 내재화 문제행동에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월가구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자녀 성장에 따른 어머니 우울 위험 집단의 예측 변인 탐색

- 어머니의 우울은 어머니의 개인 내적 특성, 양육관련 요인, 부부 관계 및 자녀의 기질 등이 서로 조합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가 만5세가 되는 시점까지는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같은 내적 특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자녀가 만6세가 되는 시점에는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 우울 위험 집단 예측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한국 영유아 부모의 양육가치관 변화 추이

- 어머니의 우울은 어머니의 개인 내적 특성, 양육관련 요인, 부부 관계 및 자녀의 기질 등이 서로 조합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가 만5세가 되는 시점까지는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같은 내적 특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자녀가 만6세가 되는 시점에는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 우울 위험 집단 예측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한국아동패널 2008-2014 자료 심층 분석 연구(계속)



이정림 편

출산전후 부모의 사회경제지표가 자녀의 알레르기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 아동의 출생 시 부모의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위험 요인들은 학령전기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과 연관성을 보임.
- 출생 후 분유수유는 모유수유에 비해 천식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으며, 임신 중 산모의 스트레스는 알레르기비염과 아토피피부염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돌봄'의 문제를 부모만이 아닌 공동체적으로 함께 해결하는 방안들을 고민해볼 필요성이 대두됨. 더불어 '돌봄의 사회화'와 '부모됨'에 대한 국가적으로 공동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 알레르기질환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머니의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부모의 흡연이나 음주 및 산모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요구됨.

▶ 정책 제언

- 영유아기의 사교육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드러났으므로 무분별하게 팽창된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및 규제가 필요함.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초기 대응의 중요함과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양육자의 대처능력을 적극적으로 키워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초기 아동의 인지 발달이 이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교육경험의 계층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유아 시기 소외 계층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됨.
- 자녀의 성장주기에 따라 어머니의 우울 위험 집단 예측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 달라지므로, 자녀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우울 중재를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달리해야 함.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도남희, 이윤진, 조아라, 박은영



▶ 배경 및 목적

- 무상보육 이후 영유아가 육아지원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아동의 생활 공간으로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영유아들의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문헌연구, 자문회의 및 전문가 간담회와 해외사례 조사를 실시함.
-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및 학부모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연구결과 공유와 정책제언의 타당화를 위한 정책포럼으로서 '어린이 안전 포럼'을 개최함.

▶ 연구결과

실내·외 안전 관리 실태

- 실내·외 안전사고 비율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으나 교육/보육실, 미끄럼틀 주변에서 발생함.
- 실내 안전관리 담당자는 주로 교사이며 실외 안전관리 담당자는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실내·외 안전사고의 주된 원인은 영유아의 개인적인 특성과 부주의로 지적됨.

교통안전 관리 실태

-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기관은 56.6%로 운행하지 않는 기관보다 많음.
- 기관 주변의 교통사고 비율은 낮았으나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높았음.

- 기관 앞의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50.4% 정도임.

안전관리 인식과 교육

- 기관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매뉴얼 준수(32.4%)를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실내·외 안전관리를 위해 영유아의 보호와 감독이 가장 어렵다고 인식함.
- 기관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기능 보강비, 맞춤형 교육, 체험중심 교육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 정책 제언

안전관리지원센터 신설

- 기관의 통합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
-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기준 제시가 필요함.
-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구성된 전문기관/지역사회의 공조가 필요함.

영역별 안전관리 제언

- 영역별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관부처와 기관이 평가체계와 법률안을 통합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법 규정과 지침을 제공해야 함.
- 시설·설비 보강이나 점검 시 벌점보다는 컨설팅으로 전환하여 도움을 제공하도록 함.
- 실내·외 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빈도가 높은 안전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how-to-do 책자가 필요함.
- 교통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하며 일시 이용 차량에 대한 안전규칙과 공동이용제 도입을 제안함.
- 인적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체험 교육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며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안전관리를 생활화하도록 함.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 어린이집·유치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간환경 조성 방안

김상호, 김은희, 임정하(건축도시공간연구소)



▶ 배경 및 목적

- 2012년 누리과정 시행과 더불어 정책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 증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설 이용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계획 측면의 연구와 대응이 미비함.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건축계획 및 시공 상의 오류에 따른 영유아의 안전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초기단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방법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관련 기준검토와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분석을 위한 문헌조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함(어린이집 10개원, 유치원 6개원).

▶ 연구결과

어린이집·유치원 안전사고 관련 공간환경 현황

-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타 유형에 비해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어 다양한 기능의 실 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공립은 대체로 조사대상 어린이집과 같이 복지시설 등 공공 복합건축물에 위치하고 있음.
- 유치원은 공립, 국립 유형에 따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단설, 병설에 따른 시설 계획 및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어린이집·유치원 안전사고 관련 공간환경의 문제점

- 어린이집 주요 거실인 보육실의 경우 기저귀 교환을 위한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생안전문제가 상존하고 있음.

- 바닥의 경우 대체로 문턱이 제거되지 않았거나 마감재의 높이차로 인한 단차를 해소하지 못해 일상적인 넘어짐 사고가 우려되는 사례가 있음.
-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손끼임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미닫이문의 경우 부분적으로 조치가 누락된 사례가 있음.

어린이집·유치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성장발달상태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 건축물과 달리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공통의 차별성을 부여하여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안함.
- 초기 시설 계획단계에 영유아의 신체발달상태, 보육 및 교육방식, 운영방식 등에 대한 사항을 고려할 수 있는 검토 요건들을 토대로 구성함.
- 안전을 전제한 초기 시설 계획단계의 합리적인 공간구성의 원칙과 세부 공간별 계획기준,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을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유관 법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와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 정책 제언

- 초기 시설 계획단계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을 고려한 시설·설비가 중요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기준으로서 가이드라인의 활용을 기대함.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1): 어린이 통학차량과 교통환경의 안정성 확보 방안

모창환, 김탁영(한국교통연구원)



▶ 배경 및 목적

- 정부의 다양한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린이 통학·통원용 차량의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통학·통원용 차량에 대한 안전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추가적 개선방안이 시급히 필요함.
-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와 어린이시설 운영자에 대한 안전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현재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재구축 필요성이 있음.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사고 현황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문헌연구와 자문회의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였음. 조사대상 기관은 세종시, 대전시, 청주시, 공주시의 유치원 6개원, 어린이집 7개원, 학원 2개원임.

▶ 연구결과

어린이 통학차량 규제의 한계와 실효성 미흡

- 영세한 학원과 전세버스(지입차량), 자가용 차량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으로 정책 수용성 미흡
- 운전자의 사고기록 조회는 자격검사에서 빠져있어 통학차량 운행에 있어 위험성이 존재함.
- 통학차량 보호자 미동승과 어린이 승하차 지도 미흡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속도 30km/h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과속측정기 등의 장비 설치가 미비하여 속도규제의 실효성이 없음.

어린이 보행환경에 대한 규정 미비

- 어린이 보육시설 내부 또는 주변의 주·정차장과 관련하여 규정된 사항이 없음.
- 어린이시설 인가 시에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안전동선 확보, 어린이 보호구역 등과 같은 조건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교통안전 교육의 부재 및 교통안전 홍보 부족

- 학교 교통안전교육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미약함: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임.
- 교통안전교육은 주로 강의나 시청각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고 체험이나 실습교육이 부족한 실정임.
- 연령별, 통학차량 운전자 및 운전자, 일반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을 받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음.
- 통학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차할 경우 인근을 운행하는 일반차량은 서행하거나 정차 후 주행해야하는 법적 의무 등에 대해 교육이 안 되어 있고 알지도 못함.

▶ 정책 제언

- 어린이 통학차량 규제의 한계 해소
-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의 실효성 증대
- 어린이 시설 내부와 주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의 법적 근거 확립과 체계적인 교통안전 교육의 시행
- 어린이 교통안전홍보 강화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격차에 따른 지역 유형화 연구

최효미, 이정원, 김진미



▶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간 격차를 식별하여 이를 중심으로 지역을 유형화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사전에 진단하여 조정하고,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지역 맞춤형 보육·교육서비스 제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방법

- 어린이집·유치원 공급률 및 정원충족률 현황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보육·교육 인프라 현황 및 지역 특성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등을 살펴보고,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현황을 중심으로 군집 분석을 실시
- 시군구 단위 공급 현황을 Arcmap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도로 작성

▶ 연구결과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현황

- 0~5세 어린이집·유치원 공급률은 서울 및 경기 남부 지역, 전라남도 서남권 등에서 낮았음.
- 0~5세 어린이집·유치원 정원충족률이 65%미만으로 낮은 지역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으나, 경상북도와 울산 등지의 몇몇 지역이 정원 충족률이 낮은 편에 속함.
- 반면, 서울 및 경기 남부 지역의 정원충족률은 80%이상인 시군구가 다수임.
- 전국 평균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고용률은 11.86%이며, 주로 농어촌 지역에 속한 시군구의 공급률이 높았음.
- 기관 유형별로는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동남권과 경기도, 경상북도의 유치원 공급률이 높았으며, 어린이집 공급률은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 지역에서 낮았음.

지역 특성과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간의 관계

- 영유아 인구 밀도와 어린이집·유치원의 공급률은 부(-)의 상관을 보였으며, 지역의 소득수준도 공급률과 부(-)의 상관을 보임. 반면, 기혼 여성 공급률은 어린이집·유치원의 공급률과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음.

지역 유형화 분석 결과

- 군집분석을 통해 지역을 5개 유형으로 유형화하였는데, 1유형은 인구밀도가 높고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이 부족한 지역, 2유형은 인구밀도가 낮음에도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이 부족한 지역, 3유형은 전반적으로 높은 어린이집·유치원 공급률과 낮은 정원충족률을 보이는 지역, 4유형은 어린이집·유치원 공급률 뿐 아니라 정원충족률,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이 고르게 중간 수준을 유지하는 지역, 5유형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급률이 특히 높고 영유아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임.

▶ 정책 제언

- 어린이집·유치원의 통합적인 수급 계획이 필요하며,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수급 예측을 위한 자료 정비 및 지역 보육·교육 지표 개발이 시급함.
- 각 유형별로, 1유형은 어린이집·유치원의 수급 균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2유형은 이동식 놀이교실 등 방문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가 요구됨. 3~5유형의 경우는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접근성 개선, 서비스 다각화 노력이 요구됨.

교육과정 우수 유치원 심사지표 및 매뉴얼 개발: 창의·인성 교육을 중심으로

최은영, 박창현, 임준범



▶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창의·인성을 중심으로 유치원교육과정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내용, 방법, 평가 체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단위 유치원 수준에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유치원 교육과정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 연구방법

- 교육과정 평가 관련 선행연구(유치원평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학교평가 자료 등)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교육과정 평가의 핵심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지표에 반영함.
- 확정된 매뉴얼 구성안을 기초로 5개 지표 영역별(교육과정 계획, 교육과정 실행, 교육과정 평가, 교육과정 운영지원,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로 분담하여 매뉴얼을 개발함.

▶ 연구결과

교육과정 심사 지표 개발

- 유치원 평가의 교육과정 영역을 근간으로 유아의 창의·인성 발달을 위한 교육과정 실행을 중점적으로 평가함. 유치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창의·인성 교육이 지속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둠.
- 영역별 지표 개수와 심사 방법은 서면심사의 경우, 4개 영역(교육과정 실행 영역 제외), 8개 항목, 20개 지표이며, 현장심사는 5개 영역, 10개 항목, 25개 지표로 구성함.

교육과정 심사 매뉴얼 개발

- 매뉴얼은 각 지표별로 평가 초점, 평가 유형(배점), 평가 척도 및 기준(지표별 5단계 척도), 평가 방법 및 확인 자료를 간략하게 표로 제시하였으며, 지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설명을 추가하고 서면심사, 현장심사 시 평가를 위해 확인할 사항을 제시함.

▶ 정책 제언

- 우수 유치원 교육과정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합의된 지표를 만들고, 이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접근은 교육주체의 이해도 제고의 바탕 위에서 전개되어야 하므로 교육과정의 실행자로서 교사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의 활성화가 필요함.
- 창의·인성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유치원, 가정,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여 영유아의 창의·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풍토 조성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운영 현황과 평가



양미선, 이윤진

▶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부모모니터링이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부모모니터링 사업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2014년 부모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한 보육·보건 전문가 250명과 부모 250명, 지원 어린이집 625개소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 연구결과

부모모니터링 운영 현황

- 부모모니터링단은 2014년 기준 총 1,701명으로 부모 892명, 보육전문가 669명, 컨설턴트 140명임.
- 부모의 참여 동기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궁금증 38.0%,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 34.8%, 보육발전 기여 14.0%, 보육관련 현장경험 8.4%, 시간제 일자리 4.4% 이었음.
- 부모모니터링단 대상 교육은 2014년 기준 총 468회로, 외부 위탁교육 226회, 자체교육 242회이었음.
- 부모모니터링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은 2014년 기준 27,169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50.5%에 해당함. 2013년 16,019개소 약 37.0% 대비 증가함.
- 2014년 지원 어린이집 중 모니터링 결과가 우수인 경우는 25,106개소, 보통 1,854개소, 미흡 209개소임.
- 컨설팅 지원 어린이집은 1,253개소로 모니터링 지원 어린이집 중 4.6%가 해당됨.
- 부모모니터링단 부모는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비율이 48.0%, 향후 참여 의향이 있다 47.6%, 없다는 4.4%로 소수임.

부모모니터링의 성과와 요구

- 부모모니터링 지원 어린이집의 어려움으로 잦은 어린이집 방문으로 인한 보육업무 과중 49.9%, 일부 지표가 평가인증 또는 지도점검과 다름 22.9%, 매년 모니터링 지표 개정에 따른 혼란과 방문 일 미공지로 어린이집 일정 조정의 어려움이 각각 6%이었음.
- 부모의 모니터링 활동시 어려움은 어린이집의 부정적 태도 30.0%, 기대보다 적은 활동량 18.4%, 일정 조정의 어려움 16.0%, 지원 어린이집이 집에서 멀어서 10.4% 순이었음.
- 부모모니터링이 부모의 어린이집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94.8%임.
-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 개선 도움정도는 부모 중 74.4%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 서비스 질 개선에의 도움정도는 시도 및 시군구 46.3%, 육아종합지원센터는 58.7%, 보육·보건 전문가 79.6%, 어린이집 42.9%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 정책 제언

- 부모모니터링단 배치 기준 마련
- 부모모니터링단 사전교육 강화와 보수교육 의무화
- 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 처우 개선
- 부모모니터링 사업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고를 위한 부모모니터링 결과 공개 범위와 방법 마련
- 평가인증과 지도점검, 부모모니터링 지표 통합·분리하여 평가체계 개편

공공형어린이집의 성과 평가 및 발전 방안 연구

유해미, 김아름, 박기원



▶ 배경 및 목적

- 민간 인프라 구조 하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도입한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성과를 부모 만족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제도 운영 방향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경기 지역에 한정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 707명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 6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경기 지역의 공공형어린이집 원장과 서울형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총 4차례 걸쳐 제도 도입 이후 운영상 개선 효과 및 요구 관련 자문회의를 실시함.

▶ 연구결과

공공형어린이집의 특성

- 2015년 기준 공공형 어린이집 수는 전국적으로 1,573개소이며 기관 규모로는 20인 이하 약 29%, 50인 이하 51.3%를 차지하며,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지역에 38.8%, 경기 지역에 420개소로 가장 많이 설치됨.
- 2015년 6월 기준 공공형어린이집 근무 1급 보육교사의 비율은 평균 67.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평가인증 점수는 96.2점으로 소폭 상향되었고,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비율은 85.7%로 나타남.
- 공공형_민간어린이집의 총 세입 중 기타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 비율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약 2배 수준임.
- 부모모니터링단 부모는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비율이 48.0%, 향후 참여 의향이 있다 47.6%, 없다는 4.4%로 소수임.

공공형어린이집 보육 공공성 인식 수준

-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이 공공형어린이집임을 '알고 있다'는 응답율은 99.0% 이고, 공공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86%로 조사됨.

-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변경 의사가 '있다'는 응답율은 16.7%이며, 비용 문제가 주된 사유임.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만족도

-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하여, 월평균 추가 이용비용은 91,387원으로 약 3만원 높고, 공공형_민간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개수(2.56개)가 많고, 의무수강 비율도 31.9%로 높음.
- 서비스 만족도는 원장과 교사 부문에서 각각 4.58점(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 이하 동일)과 4.56점으로 높은 반면, 물리적 환경(주변 환경, 시설 설비) 부문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4.28점, 4.31점).
-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하여 이용비용 만족도 특히 공공형_민간어린이집에서 4.24점으로 낮음.
- 보육교사/상호작용과 보육환경/안전관리 부문에서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높은 평가를 보이며, 운영 관리 항목에서는 공공형_가정어린이집이 공공형_민간어린이집보다 높게 평가됨.

▶ 발전 방안

- 공공형어린이집 인증 시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현황을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형평하게 선정함.
- 선정 제외대상으로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이 보육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하향 조정함.
- 공공형_민간어린이집의 특별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회계관리시스템 도입함.
- 비담임교사와 보육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비담임교사를 우선 지원함.
- 자율공부모임에 3년 또는 4년 이상 참여 시는 맞춤형 보육컨설팅 지원으로 교육 방식을 전환하고, 보육컨설팅 지원 시에 안심보육 부문을 추가 시행함.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역할 제고 및 참여 활성화 방안: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윤재석, 이정림, 임준범



▶ 배경 및 목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서비스 이용자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수혜자로서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살펴보고, 부모참여 현황과 인식 및 요구 등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방법

- 문헌조사, 설문조사(온라인·오프라인 조사 포함), 사례조사, 심층면담 및 자문회의
- 설문조사에는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역할·참여 인식 및 현황조사와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역할수행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 조사가 포함됨.
- 사례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인천광역시청,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의 부모참여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를 통한 사례수집 및 분석이 포함됨.

▶ 연구결과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역할 및 참여 실태

- 부모와 교사들은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부모를 양육 동반자·협력자로 인식하고 있었음.
- 부모는 기본적으로 1차적 양육자로서의 책임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정부가 지원하는 무상보육비에 대한 관리책임보다 자신들이 지불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 교사는 부모참여활동 활성화로 인해 자신들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 부모와 보육교직원들은 의사소통과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부모참여활동을 제도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역할수행을 위해 지켜야할 사항

- 어린이집 운영규칙 준수에 관한 사항(387건)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교사 및 교사의 수업권 존중에 관한 사항(365건)이 제시되었음.
- 부모들이 지켜야할 사항으로 '영유아의 등·하원 시간을 지키고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2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사를 존중'해 달라는 의견이 180건으로 뒤를 이었음.

부모참여 프로그램 사례분석

- 본 연구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한 '부모참여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모전'에 출품된 프로그램(전체 34건)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7개 프로그램에 대해 활동사례를 분석함.

▶ 정책 제언

- 부모역할 개념 정립 및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자 수칙'을 제정 보급
- on·off·line 부모교육을 통한 부모의 사회적 책임의식 제고
- 부모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 보육조례 재(개)정을 통한 부모참여 활성화
- 어린이집 '부모참여의 날' 지정·운영
- 「공익 어린이집운영위원 파견제」시행
- 부모참여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파급
- 부모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 확대

지역별·유형별 어린이집 수급 현황 분석 및 전망



박진아, 도남희, 조혜주

▶ 배경 및 목적

- 지역별·유형별 어린이집 수요·공급에 격차가 있어 이와 같은 차이를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보육수급 관리와 장기적 보육수급예측을 통한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임.
- 최근 5년간의 어린이집 수급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 어린이집의 수급계획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지역별 보육 수요를 예측하고 향후 5년간 어린이집 수급을 전망하여 합리적인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립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방법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별 어린이집 수요·공급 기초 자료를 분석함.
- 비선형 시계열 모형을 추정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에 따라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 예측 후 지역별·유형별 어린이집 수급을 전망함.

▶ 연구결과

지역별·유형별 어린이집 수급 현황

-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어린이집 영유아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1,279,910명에서 2011년 1,348,729명, 2012년 1,487,361명, 2013년 1,486,980명, 2014년 1,496,671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함.
- 2010~2014년 기간 동안 어린이집 영유아 추이는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제주 지역이 매해 증가하고, 그 외 지역은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됨.
-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분석 기간 동안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어린이집 영유아가 증가함.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어린이집 공급은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함. 2014년 전국의 어린이집은 모두 43,742개소로 이는 2013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0년과 비교할 때 15.0% 증가함.

지역별·유형별 어린이집 수급 전망

- 예측 1안은 향후에도 어린이집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결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급과 수요와의 격차는 전국적으로 34만명 수준으로 나타남. 지역에 따라 어린이집 수급 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 정원을 기준으로 할 때, 대부분의 지역이 공급 과잉으로 전망됨.
- 예측 2안에 따르면, 2014년 전국의 어린이집 정원은 1,800,659명이며 현원은 1,488,435명으로 정원의 82.7% 수준임.
 - 지역에 따라 정원과 수요 예측치의 격차는 다르게 나타남. 서울의 경우 2015년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전망되나 이후 점차 공급과 수요의 폭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천, 경기 지역이 서울과 같은 추세를 보이고 그 외 지역은 2015~2019 기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공급과잉이 심해지는 추세임.

▶ 정책 제언

- 인구 변화를 반영한 수급계획 수립이 필요함.
-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단위 보육수요 조사 기반의 보육수요율 추정이 필요함.
- 유치원 수요를 고려한 어린이집 수급계획 마련
- 수급계획 시 활용 지표의 세부 기준 마련 및 신규 지표 개발

인성교육 우수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범사업(2012-2015년) 성과 분석

문무경, 박창현, 박기원



▶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공동주관으로 지난 3개년(2012.5월~2015.8월) 동안 추진된 '인성교육 실천 우수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도 및 시범사업 추진체계 평가를 통하여 향후 효과적인 유아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총 278개 시범기관 원장 및 담당교사 각 1인씩(기관당 2인), 총 556명 전수를 대상으로 웹페이지 기반 온라인 조사를 실시함(총 138개원 266명, 유치원 60개원과 어린이집 78개소 참여).
- 시범기관 원장 및 교사 총 8명과 시범기관 심사자 3인, 담당공무원 2인 대상 심층면담 실시
- 총 6개 최우수 시범기관 사례분석(유치원과 어린이집 각 3개 기관씩)

▶ 연구결과

유아 인성교육 시범기관의 성과 평가

- 전체 시범기관의 78.6%가 3년간 동일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대부분 연차별로 심화·확장되었으며, 시범사업이 심화·확장되지 못한 이유로 교사 이직(66.7%)이 지적됨.
- 시범기관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점을 둔 주제는 인성덕목 및 가치중심 교육(41.4%) 기본생활습관 함양 18.8%) 사회정서교육 18.0% 순으로 조사됨.
- 인성교육 시범사업의 애로사항은 인성교육 실천에 부적합한 시간적·물리적 여건(교사 1인당 많은 유아 수, 교실 공간 등)(48.1%)> 누리과정 생활주제와의 다양한 연계방안 미흡(16.2%)> 시범사업 지원체계 부실(12.0%)> 부모의 비협조 및 이해 부족(11.7%) 등으로 파악됨.

- 본 연구의 조사에 참여한 시범기관들은 정부의 인성교육 시범사업 목표를 70% 이상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됨. 3년동안 동일기관에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가능하였음.
- 사례분석을 통하여 유아에 대한 시범사업의 성과는 유아의 정서적 안정감, 고운 말을 쓰는 유아의 태도, 공격적이지 않은 순화된 말씨, 차분하고 질서있는 교실 분위기 등으로 인식됨. 또한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교육이 활성화됨으로써 유아기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이 증진되었음.

유아 인성교육 시범기관의 개선 요구

- 전반적인 시범사업 추진체계의 효율성(31.6%)> 지원(컨설팅 등) 인력 제공(16.5%)> 시범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13.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기관유형별, 지역별로 장점을 반영한 평가제도 마련, 시범기관 현장심사자의 질 제고 및 관리 강화가 요구됨.

▶ 정책 제언

- 유아 인성교육 관리체계의 효율화(일원화된 관리체계 및 시범기관 평가제도의 정착 필요)
- 유아인성교육 컨설팅 활성화(프로그램과 교수학습방법, 인적자원 측면의 지원 강화 필요)
- 지역별, 기관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강화
- 유아인성교육 네트워크 확산을 통한 지역 공동체 강화(우수사례 공유 및 보고회 공동 주최 등)
- 인성교육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 인식 증진 및 참여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유아 인성교육의 본질과 성과에 대한 연구 수행(유아인성교육 영향 평가 연구 수행 등)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CCTV의 설치 및 운영방안: 유치원·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강은진, 이정림, 조혜주



▶ 배경 및 목적

- 현재 국내외 CCTV 관련 규정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CCTV 설치 현황 및 구성원들의 요구를 살펴보고 관련 문제점과 개선안을 연구하여 CCTV 설치와 운영이 아동과 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국내외 CCTV 관련 법령과 지침 검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CCTV 설치와 운영 실태 조사, 최근 5년간 (2010~2015년) 주요 4대 일간지의 CCTV 관련 신문기사 내용 분석, 교사대상 설문조사(유치원 107명, 어린이집 107명)와 원장, 교사, 학부모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한 인식, 현황, 요구 등을 분석함.

▶ 연구결과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설치에 대한 전반적 인식

- 최근 5년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기사 중 2015년에 272건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 및 폭력의 증거로 사용된다는 내용과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내용이 각각 92건, 91건으로 가장 많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들과의 면담에서 부모들은 CCTV가 부모와 교사/기관과의 관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사와 원장은 통제와 감시로 불신과 오해 초래, 인권 침해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라는 긍정적 인식도 있었음.
- 유치원 교사의 52.3%가 CCTV 설치에 대해 찬성한 반면, 어린이집 교사의 64.5%가 설치에 반대함. 특히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교사들의 반대가 컸음.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설치에 대한 현황 및 요구

- 본 조사에 응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각각 86.9%, 73.8%가 CCTV를 설치하고 있었으며, 교사들의 의견보다는 원장과 외적인 요인이 설치에 영향을 주고 있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CCTV 설치를 위해 '교직원의 동의'와 '부모와의 CCTV 열람 원칙 합의'가 필요한 조건이라고 대다수가 응답함.
- 심층면담 결과 CCTV 설치를 위한 현장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설치시 교사인권보호도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함.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운영에 대한 현황 및 요구

-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CCTV 운영 시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으나,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CCTV 관련 규정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S/W 설치에 대해서는 두 기관 모두 과반수 이상이 모르고 있었음.
- 부모들의 CCTV 녹화물 열람 빈도는 거의 없는 편이나 기관에서 부모들에게 CCTV 녹화물 제공 시 어린이집에서는 사전에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를 받아 모든 영유아를 보여준다는 응답이 34.2%로 가장 많았으며, 유치원의 21.5%, 어린이집의 29.1%가 별다른 동의절차 없이 다른 영유아들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고 응답함.
- CCTV가 바람직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교사들은 교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록물 관리와 교사 신뢰성 회복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정책 제언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설치에 대한 개선 방안

- CCTV의 합목적적인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제 마련
- 신규 설치기관 컨설팅

유치원·어린이집의 CCTV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운영 방안 마련
-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CCTV 운영 방안 마련
- 보호주체(아동, 교직원, 부모)에 따른 CCTV 설치 및 운영 방안 마련

유아교사의 통일인식 실태와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이윤진, 양미선, 조아라



▶ 배경 및 목적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통일인식 및 통일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아울러 현재 누리과정에서 가르치고 있는 유아 통일교육의 실태를 고찰하여 통일인식 제고 및 유아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전국의 누리과정 담당 교사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면담조사, 정책세미나

▶ 연구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북한 및 통일교육 운영 현황

- 북한 및 통일교육은 누리과정의 사회관계 영역에 편성되어 있으나, 북한 또는 통일이란 용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 관련 수업활동을 제시한 「우리나라」생활주제에 만3세 대상의 수업활동은 없으며 만4세는 2개, 만5세는 3개의 수업활동만이 실려 있음.
- 실제 72.1%가 연간 수업계획안에 북한 및 통일교육을 편성하지 않으며 편성한 경우, 연간 수업일수는 5~9일 25.9%, 1~2일 25.0%로, 기관에서 비중있게 다루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교수방법은 대·소집단활동(71.0%)의 이야기나누기(89.8%) 방식에 치우쳐 있음.

유아교사의 통일교육 및 통일인식 현황

- 최근 3년 기준으로 통일교육 연수를 받은 교사는 4.3%(17사례)에 불과함.
- 연수가 저조한 주된 이유는 “연수가 있는지 몰라서”(53.0%), “개설된 연수가 없어서”(30.0%)임.
- 만3세 유아대상 통일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가 54.0%로 가장 많았으나, 교육내용상의 연계 및 혼합연령반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찬성한다”는 의견도 43.8%임.

- 수업활동에 필요한 활동자료(ppt, 그림사진 등)들이 풍부하게 제공되기를 가장 희망함(43.0%).
- 교사가 인식하는 ‘바람직한’ 남북 관계는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수준”(47.5%)임.
- 유아교사는 20~30대가 주를 이루는데, 이들 연령대는 40대 이상보다 유아 대상 통일교육 실시를 반대하는 응답이 높게 나왔으며 북한을 적대시하는 경향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 정책 제언

- 정부는 헌법 제4조, 헌법 제66조 및 통일교육지원법을 근거로 모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따라서 누리과정에서 북한 및 통일교육 부분 편성·운영을 확대하고, 관련 부분에 북한 및 통일이란 용어를 직접적으로 명시
- 만3세 유아 대상 북한 및 통일교육을 위한 수업활동을 개발·보급
- 어린이집 교사도 교사 연수 대상에 포함하고, 통일교육원의 유아교사 연수 확대
- 누리과정 5개 영역, 실내·외 환경, 놀이와 체험방식의 통합적이고 균형있는 수업활동 및 활동자료 개발·보급
- 통일교육원에서 다양한 활동자료들을 제공할 것을 제안
- 어렸을 때부터 ‘나와 다른 북녘 또래’에 대해 따뜻한 관심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평화감수성을 계발하는 통일교육 실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실태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



유해미, 박창현, 박기원

▶ 배경 및 목적

- 정부의 맞춤형 보육지원 강화 기조에 따라 2013년 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정내 양육지원으로 그 기능을 확장함에 따라 센터 이용·운영 실태 및 요구를 분석하여 운영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전국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장 67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부모 815명과 보육교직원 432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 및 요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연구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및 요구

- 어린이집 지원은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의 실시율이 가장 높고, 가정양육 지원은 시·도 센터의 경우는 시간제 보육, 시·군·구 센터는 도서 대여 사업의 실시율이 가장 낮음.
- 센터 운영상 주된 애로사항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 확보, 부족한 인력 수급 등임.
- 개선 요구로는 가정양육 지원은 '집과 가까운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늘림'이 41.8%, 어린이집 지원은 '보육컨설턴트 양성 및 역량 강화'가 20.0%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임.

영유아 부모의 이용 실태 및 요구

- 센터 최초 이용 시기는 12개월 미만이 43.2%로 가장 높고, 장난감 대여 이용률이 62.5%로 가장 높으며, 이용시간은 기관 이용가구는 오후 2시 이후, 취업모는 오후 6시 이후 이용률이 높음.
- 이용 만족도는 자유놀이실/육아카페와 어린이 도서 대여서비스에 만족하는 비율이 각각 89.9%와 89.6%로 높고, 도움 정도는 시간제 보육(평균 4.51점), 장난감 대여 4.42점 순임(매우불만족 1점~매우만족 5점으로 평정).

- 개선 요구로는 '집과 가까운 거리내의 기관을 늘린다'가 41.8%로 가장 높고, 서비스 유형별 필요도는 장난감 대여와 자유놀이실/육아카페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각각 92.6%와 93.3%로 높게 나타남.

보육교직원의 이용 실태 및 요구

- 서비스 유형별 이용율은 평가인증 관련 정보가 81.0%로 가장 높음.
- 이용 만족도는 대체교사 지원이 4.06점(매우불만족 1점~매우만족 5점으로 평정)으로 가장 높고, 도움이 되는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표준보육과정 교육을 가장 많이 응답함(29.9%).
- 서비스 유형별로 필요도는 대체교사 지원, 안전교육, 상호작용과 교수법 컨설팅, 평가인증 관련 상담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개선 요구는 대체인력 수급 관리 효율화 44.2%, 보육교직원 교육내용 보강 14.8% 순으로 응답함.

▶ 내실화 방안

- 가정양육 지원은 공통사업으로 부모 교류 공간 제공을 추가하고, 어린이집 지원은 시·도 센터와 시·군·구 센터의 기능을 구분하여 제시함.
-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유사기관 기능 확대 및 연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분원 설치 및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분원은 가정양육 지원 중심으로 그 기능을 전환함.
- 가정양육 지원은 사업 방향으로 육아정보 제공과 육아상담을 강화하고, 아동 연령별 프로그램 다양화, 상담서비스 전문화에 주력함.
- 어린이집 지원은 사업 방향으로 보육과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대체교사 지원을 강화하고, 심화교육 강화, 보육컨설턴트의 전문성 제고, 보육교직원 대상 상담 인력 배치 등을 추구함.

유아기 건강증진 지원방안 연구: 신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김갈숙, 박원순, 송신영



▶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초등학교 이상 대상인 미항공우주국(NASA)에서 개발된 신체 건강 증진프로그램을 4, 5세용 프로그램으로 수정·보완하여 개발하고자 함.
- 또한 국내의 유아기 건강 관련 법률 분석, 국내외의 유아기 건강 증진 정책고찰 및 현재 우리나라 유아 교육·보육 현장의 유아기 건강 증진을 위한 개선점 및 요구를 파악하여 유아기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자료 분석, 프로그램 개발 연구진 회의, 자문회의 및 워크숍, 심층면접, 국외출장을 통해 연구를 수행함.

▶ 연구결과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영양(8개), 과학(7개), 운동(20개)의 3가지 영역으로 총 35개의 활동임.
- 4, 5세 유아의 인지적, 신체적 발달 수준과 유아교육·보육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 회기 운영 시간이 20~30분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누리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간 주제와 연결하여 적용한 활용 안 2개와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특별활동프로그램 및 그 외 활용 가능하도록 한 활동의 난이도를 고려한 활용 안 1개, 총 3개 안을 제시함.

유아기 건강 관련 법·제도 및 건강증진 정책

- 영양·식생활 교육,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자료 개발·보급, 가정·학교·지역의 연계, 정부의 지원, 영양·식생활 안전관리, 급식 관리, 영양사 고용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항이 있음.

- 건강증진계획 수립·시행, 체육 시설·여건 조성 및 확충, 체육 활동의 활성화, 체육 용구 생산 장려 및 지원, 정부의 지원, 비만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항이 있음.

- 유아기 건강증진정책으로는 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육아지원기관의 급·간식이 있음.

영양·식생활 교육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요구 사항

- 프로그램 개발·보급, 프로그램 활용 방법에 대한 동영상 제작, 교사 재교육 시 영양·식생활 및 신체 활동 과목 필수과목으로 지정, 부모 교육, 지속적인 영양·식생활 교육 마련에 관한 요구 사항이 있었음.

▶ 정책 제언

- 건강 증진 지원 정책의 목적을 치료가 아닌 예방에 초점을 두고 비만 아동만이 아닌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건강한 신체를 단련하기 위한 올바른 건강 교육을 실시
- 어린 유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려하는 확대·적용된 법조항 마련
- 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프로그램 개발 시 관련 전공 전문가들이 함께 개입하여 개발하고 관련 교구·교재 보급 및 동영상을 제작하여 필요시 마다 찾아볼 수 있도록 함.
- 근접성에 유리한 학교 내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고 확충하여 운동을 전 생애에 걸쳐 꾸준히 습관화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2015
ANNUAL
REPORT**

III

2015년도 행사·간행물



육아정책 관련 연구성과를 홍보 및 확산하기 위해
국내·외 세미나 개최, 간행물 발간,
정책 네트워크 운영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
주요 간행물

주요 행사

육아정책 심포지엄

육아정책 심포지엄은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주요 현안과 쟁점에 대한 원내외 전문가들의 연구동향 공유 및 토론을 통한 정책대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며 2015년도 육아정책 심포지엄은 7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2차는 원내 연구직원의 해외연수 결과 공유와 신규직원의 연구실적 공유를 목적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고, 3~7차는 '보육교직원(건강·영양·안전)의 직무 현황과 개선 방향', 'ADHD 아동 치료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등을 주제로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주요 참석자
제1차	2015. 1. 28(수) 연구소 대회의실	육아정책 관련 국내외 연구 동향 (해외기관 및 학위논문)	발표: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윤재서 전문위원
제2차	2015. 4. 9(수) 연구소 대회의실	신규박사 관심분야 및 학위논문 소개	발표: 강은진 연구위원, 박원순 부연구위원, 박창현 부연구위원, 김아름 부연구위원
제3차	2015. 4. 28(화) 연구소 대회의실	유치원의 안전한 실내·외 환경 관리를 위한 탐색	발표: 이진화 연구위원, 배운진 부연구위원 토론: 이성희 교수(우송대 유아교육과), 김경희 장학관, 홍혜정 장학사(충청남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제4차	2015. 5. 26(화) 연구소 대회의실	육아정책과 아동중심 사상	발표: 이윤진 연구위원 토론: 유혜령 교수(전 영남대 유아교육과), 조상식 교수(동국대 교육학과)
제5차	2015. 6. 30(화) 연구소 대회의실	보육교직원(건강·영양·안전)의 직무 현황과 개선 방향	발표: 도남희 부연구위원 토론: 최명희 교수(신구대 아동보육전공), 마미정 센터장(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제6차	2015. 7. 23(목) 연구소 대회의실	ADHD 아동 치료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발표: 이정림 연구위원 토론: 이정숙 교수(한양대 아동심리치료학과), 정익중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제7차	2015. 10. 23(금) 연구소 대회의실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의 부모참여와 성과	발표: 양미선 부연구위원 토론: 박진옥 교수(동원대학 아동보육복지전공), 마미정 센터장(인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움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움



제7차 육아정책 심포지움

선진육아지원네트워크 운영: 협의회

「선진육아지원네트워크」는 산·학·연 교류를 위하여 유아교육·보육 관련 학회, 아동·가족복지 관련 학회, 유아교육·보육 관련 단체, 공공기관, 아동 관련 단체 등 총33개 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이다. 2015년에는 유보통합의 기본 방향 및 추진 현황과 그 논쟁점에 대하여 각 분야별 간담회를 총 5차례 실시하였고, 한 차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사업과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학계 Opinion Leaders 간담회	2015. 8. 28(금) 연구소 대회의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Opinion Leader의 역할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간담회	2015. 9. 14(월) 연구소 대회의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우리의 역할	
유보통합 관련 간담회	한국국립유치원교원연합회 및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간담회	2015. 9. 21(월) 연구소 대회의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우리의 역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담회	2015. 10. 2(금) 연구소 대회의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우리의 역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간담회	2015. 10. 15 연구소 대회의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우리의 역할	
선진육아지원네트워크 자문회의	2015. 12. 21(월) 더팔레스 호텔	육아정책연구소 2016년도 연구사업 관련 논의 선진육아지원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논의	



유보통합관련 학계 간담회



유보통합관련 단체 간담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유보통합관련 단체 간담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유보통합관련 단체 간담회
(한국국립유치원교원연합회)

주요 행사

▶ 선진육아지원네트워크 운영: 육아선진화 포럼

「선진육아지원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육아지원정책 관련 전문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기관, 지역사회, 가정 연계·협력하는 지원책을 논의하는 육아선진화 포럼이 개최되었다. 2차에 걸쳐 진행된 육아선진화 포럼에서는 ‘육아선진화를 위한 관련 기관의 교류와 협력’과 ‘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 육아지원의 실제와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주요 참석자
제1차	2015. 4. 10(금) 연구소 대회의실	육아선진화를 위한 관련 기관의 교류와 협력	발표: 정혜순 원장(서울시유아교육진흥원) 조용남 국장(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이광진 센터장(강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김현진 사무국장(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이남정 센터장(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김승옥 센터장(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유해미 부연구위원
제2차	2015. 12. 21(월) 더 팔레스 호텔	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 육아지원의 실제와 과제	발표: 류길재 전 장관(통일부) 홍민 연구위원, 이경화 객원연구위원(통일연구원) 이미현 전 북한 유치원 교사 이윤진 연구위원 토론: 양옥승 교수(덕성여대 유아교육과) 이기범 교수(숙명여대 교육학과) 박영정 센터장(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일문화연구소) 이은희 교사(공주대 사범대부설유치원)

▶ 국제세미나

육아정책연구소는 2015년 네 차례의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4차 국제세미나에서는 각각 OECD, 뉴질랜드, 노르웨이의 ECEC 전문가들,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영국 런던대학교, 중국 화동사범대학교 등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OECD 국가 사례를 통한 성공적 유보통합의 전략 모색, 누리과정: 한국 ECCE의 성과와 전망, 한·중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의 이슈와 전망, 유아발달 평가의 국제 동향과 쟁점 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주요 참석자
제1차	2015. 2. 25(수)-26(목) 서울 플라자호텔	육아선진화를 위한 관련 기관의 교류와 협력	발표: 김은실 연구위원 Yuri Belfai(Head of Division, Early Childhood and Schools, OECD) Lasse Lipponen(Prof. Univ. of Helsinki, Finland) Sandra Collins(Manager Special Projects, Education Review Office, New Zealand) Tove Mogstad Slinde(Senior Advisor,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Norway) Peter Moss(Emeritus Prof. Univ. College London, UK)
제2차	2015. 5. 18(월) 송도 컨벤시아	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 육아지원의 실제와 과제	발표: Dan Shechtman(Prof. Technion, Israel)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이정림 연구위원 토론: Sheldon Shaeffer(Director, ARNEC) Maki Hayasikawa(Chief, Sec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UNESCO) 인효진 교수(인천대)
제3차	2015. 10. 30(금) 외교센터 12층	한·중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의 이슈와 전망	발표: 이민의 교수(북경사범대) 주가용 교수(중국유아교육학회장, 화동사범대)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토론: 이승신(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형숙 교수(중앙대) 구자역 교수(서경대), 김금미 장학관(서울시교육청)
제4차	2015. 11. 27(금) 외교센터 12층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in Assessing Children's Development and Learning (유아발달 평가의 국제 동향과 쟁점)	발표: Peter Tymms(Prof. Durham Univ. UK) Alfredo Bautista(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Singapore)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토론: 조지민(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성식 교수(서울교대) 옥련진 교수(이화여대), 장경은 교수(경희대) 김창환(한국교육개발연구원)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



제2차 육아선진화 포럼



제1차 국제세미나



제2차 국제세미나



제3차 국제세미나



제4차 국제세미나

주요 행사

▶ 협동연구 공동 정책세미나

육아정책연구소는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 유치원·어린이집 환경을 중심으로' 주제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협동연구를 수행하였다. 협동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다학제간의 토론을 위하여 협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제1차 어린이 안전 포럼'을 개최하였다. 각 협동연구기관에서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관련학계 전문가 및 유관부처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이루어졌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및 발표자	토론자
제1차	2015. 12. 18(금) 외교센터 12층	발표1: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 방안 (도남희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이완정 교수(인하대 아동가족학과)
		발표2: 어린이집·유치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간환경 조성방안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성철 팀장(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허 역 교수(가천대 도시계획학과) 조영석 사무관(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허창호 사무관(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류승표 국장(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국)
		발표3: 어린이 통학차량과 교통환경의 안전성 확보 방안 (모창환 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 학술대회

제6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창립 10주년 행사를 겸해 12월 4일 외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학술대회에서는 Atsuko Araki 교수의 'The Hokkaido Birth Cohort study on Environment and Children's Health and a brief introduction of Japan Environment and Children's Study'에 대한 주제강연과 서울아산병원 소아천식·아토피센터의 홍수종 교수,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경자 교수,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김낙홍 교수의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주제발표가 있었고 각계 전문가의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및 발표자	토론자
육아정책연구소 10주년 기념식 및 제6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2015. 12. 4(금) 외교센터 12층	한국아동패널의 과거와 미래	
		주제강연: The Hokkaido Birth Cohort study on Environment and Children's Health and a brief introduction of Japan Environment and Children's Study(Atsuko Araki, Prof. Hokkaido Univ. Center for Environmental and Health Sciences)	하은희 교수 (이화여대 예방의학과)
		주제발표 1: 한국아동패널조사를 통한 소아 알레르기질환 연구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소아천식·아토피센터 교수)	오경자 명예특임교수 (연세대 심리학과)
		주제발표 2: 형제가 아동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경자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신동주 교수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주제발표 3: 보육·교육기관, 유아, 교사 특성 간의 관계: 단기종단적 연구(김낙홍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			



제1차 어린이 안전포럼



제1차 어린이 안전포럼



육아정책연구소 10주년 기념식



육아정책연구소 10주년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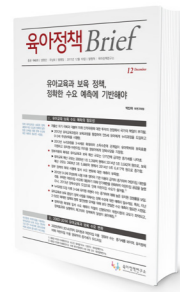
제6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주요 간행물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정책적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 육아정책 Brief

육아정책 Brief를 통하여 유아교육·보육과 관련하여 당면한 주요현안에 대한 신속한 분석 및 현실성 있는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매월 1회 발간하며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다.



호수	발행일	제목	필자
33호	2015. 1.10.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별 불균형 해소해야	이정원 부연구위원
34호	2015. 2.10.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건강 및 영양 불평등 해소되어야	이정림 연구위원
35호	2015. 3.10.	육아정보의 접근성 제고되어야	민정원 부연구위원
36호	2015. 4.10.	영유아 교육·보육 연계 통합 생산을 위해	박진아 부연구위원
37호	2015. 5.10.	우리 사회의 아동 권리를 진단하다	도남희 부연구위원
38호	2015. 6.10.	남북 어린이 교류의 다리, 성인세대가 만들어 나가야	이윤진 연구위원
39호	2015. 8.10.	증가하는 중국동포 육아도우미, 제도화 뒷받침 되어야	최윤경 연구위원
40호	2015. 9.10.	어린이 통학차량, 모두가 보호해야	김은설 연구위원
41호	2015.10.10.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공급이 필요해	최효미 부연구위원
42호	2015.12.10.	조부모의 황혼육아, 그 실태와 지원방안을 모색하다	이윤진 연구위원
43호	2015.12.10.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정확한 수요 예측에 기반해야	박진아 부연구위원

▶ KICCE Policy Brief

KICCE Policy Brief는 한국의 육아정책 관련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 제안을 쉽게 서술하여 해외 유관기관 및 학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영문 간행물이다.



호수	발행일	제목	필자
5호	2015. 9.	ECEC Statistics of Korea: Access to Services, Participation and Financial Resources	전략기획센터
6호	2015.11.	ECEC Statistics of Korea (II): Workforce and Quality Monitoring	전략기획센터
7호	2015.12	Integration of ECEC in Korea: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전략기획센터

주요 간행물

Issue Paper

단기적으로 부상하는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호수	발행일	제목	필자
1	15. 9. 15	누리과정 정책 모니터링에 따른 개선방안	이윤진 연구위원
2	15. 9. 15	누리과정 교사 연수 운영 실태 및 요구 분석	양미선 부연구위원
3	15. 9. 15	누리과정 관련 교수학습자료 이용 실태 및 지원방안	양미선 부연구위원
4	15. 9. 15	유아 관찰을 통한 3~5세 누리과정 효과 분석 및 제언	이정림 연구위원
5	15. 9. 15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연계 강화 방안	김정숙 부연구위원 장혜진 교수
6	15. 9. 15	유아기의 행복감 수준과 증진방안	도남희 부연구위원
7	15. 9. 15	저소득 가정 영유아 건강·영양 실태 및 개선방안	이정림 연구위원
8	15. 10. 15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권미경 부연구위원
9	15. 10. 15	유치원 회계 실태와 개선점	김은설 연구위원
10	15. 10. 15	영아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 및 지원방안	이미화 선임연구위원
11	15. 10. 15	유아교육진흥원 발전 방안	최은영 부연구위원
12	15. 10. 15	영유아를 둔 취업모의 양육지원 요구 및 정책 방안	유해미 부연구위원
13	15. 10. 15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실태 및 개선 방안	양미선 부연구위원
14	15. 10. 15	육아지원 센터 이용 현황과 활성화 방안	이윤진 연구위원
15	15. 10. 15	영유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및 형평성 제고 방안	이정원 부연구위원
16	15. 10. 15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 운영을 위한 시설 설비 및 인력 현황과 개선 방안	도남희 부연구위원
17	15. 11. 15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 통합 생산방안	박진아 부연구위원
18	15. 11. 15	지자체 주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방안	권미경 부연구위원
19	15. 11. 15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김은설 연구위원
모음집		2015 KICCE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

육아정책포럼

육아정책포럼은 육아 관련 현안 정책과제를 분석하는 '집중조명'과 국내외 육아정책 동향을 담은 '정책동향' 등으로 구성된 계간지이다.



호수	발행일	구분	제목	필자
43호	2015.3.15	권두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질 관리 (물리적 환경)	우남희 소장
		집중조명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 실태 및 요구분석	김은설 연구위원
			유치원 교재교구 실태	김정숙 부연구위원
		정책동향	질 관리 관련 국제비교(2개 국가)	장혜진 대구대 조교수
44호	2015.6.15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	송신영 전문연구위원
		권두언	전문성 있는 영유아 교사를 기대한다	우남희 소장
		집중조명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 체제에 대한 인식 및 개선 방안	김은영 연구위원 김길숙 부연구위원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지원	양미선 부연구위원
		정책동향	유치원교사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제도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유·보 통합 전략의 모색: 한-OECD 국제세미나 지상 중계	김은설 연구위원
		소식마당	유치원 교원 현황 및 추이 분석을 통한 향후 교원 정책의 방향 재고	최은영 부연구위원
			육아정책 소식	조혜주 전문연구위원

주요 간행물

호수	발행일	구분	제목	필자
45호	2015. 9.15	권두언	영유아의 기관 이용 보편화 시대, 부모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생각한다	우남희 소장
		집중조명	양육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이윤진 연구위원
		정책동향	부모교육제도 도입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요구	이미화 선임연구위원
		정책동향	「인성교육 우수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모·운영 사업」 및 「전국 50대 교육과정 우수 유치원 선정 사업」	장윤정 교육부 교육연구사
		정책동향	부모참여가 확대된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노력	권미경 부연구위원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	엄지원 연구원
		권두언	생애초기 출발선의 평등, 누리과정을 통해 기대한다	우남희 소장
		집중조명	3-5세 누리과정 운영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이윤진 연구위원
		집중조명	「3-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 척도」를 활용한 효과분석 연구	이정림 연구위원
		정책동향	세계육아정책동향-스웨덴의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 정책	최윤경 부연구위원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	이혜민 연구원		

육아정책연구

육아정책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학술지로서, 연 2회 발간되고 있다. 취학전 영유아 대상의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과 과제를 다루는 전문가 대상의 학술지이다.



호수	발행일	제목	필자
9권 1호	15.6.30	가정환경이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교사효능감의 조절효과	김수정(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후연구원) 정익중(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아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와 평일이용시간이 놀이방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오경희(부산대 교육학과 전임대우강사) 나은경(부산대 교육학과 박사수료) 박의향(부산대 교육학과 석사과정)
		만 3세 유아의 기질 및 언어발달과 어머니의 자녀가치가 유아의 긍정적·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임현주(배재대 유아교육과 교수) 최선녀(대전대 아동교육상담학과 겸임교수)
		시간제 보육 현황과 발전 방안	이영환(전북대 아동학과 교수)
		2010년-2015년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른 정원충족률 변화	유재언(아이오와주립대 인간발달·가족학과 박사과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과 영유아의 기질 및 내재화 문제의 구조관계: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다집단분석	박새롬(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노보람(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박혜준(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이순형(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생태체계 요인에 따른 취업모의 취업지속 영향 요인: 생존분석을 이용하여	박진아 부연구위원 장유진 서울대 박사수료
		영유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실태분석	이정원(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정주영(경희대 교육대학원 학술연구교수) 최효미(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진미(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직무만족도 및 배우자의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정은영(화성삼성어린이집 교사) 강민주(연세대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어린이집 대체교사의 직무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최정화(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선결 과제	최은영(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주요 간행물

호수	발행일	제목	필자
9권 2호	15.6.30	한자녀 가정의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가족 환경적 특성과 유아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중심으로	이진화(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경은(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임원신(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 5세반 교사의 컨설팅 요구와 개선 방안	최은영(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최윤경(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유아교사의 수업회법 능력 평가 도구 개발	김호(경인교대 유아교육과 부교수)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긍정적 양육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김영미(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박사과정) 송하나(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부교수)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교실 환경, 상호작용 및 유아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 간의 구조적 관계	이형민(우송대 아동복지전공 초빙교수)
		무상교육·보육정책으로서의 누리과정 현황과 개선방안	이윤진(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규림(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조아라(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활용 연구동향 분석: 부작용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김영환(부산대 교육학과 교수) 정주훈(부산대 멀티미디어협동과정 박사수료) 이현아(부산대 교육학과 시간강사)
		보육시설 유형 간 보육교사 임금격차 결정요인의 추정	한유진(명지대 아동학과 교수)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이동해(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영유아 기질의 변화궤적 및 예측요인 분석	한지현(전북대 아동학과 시간강사)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ICEP)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ICEP)는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문 학술지이며, 「IJCEP 홈페이지 (<http://www.ijccep.com>)」에서 오픈엑세스 형태로 발간되고 있다. 미국 뉴저지 주립 Rutgers 대학의 국립유아교육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와 육아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발간한다.



호수	발행일	논문제목	필자
9:1	2015.2.26	Do increased availability and reduced cost of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narrow social inequality gaps in utilization? Evidence from Norway	DErin Sibley(Lynch School of Education, MA) Eric Dearing(Norwegian Center for Child Behavioral Development) Claudio O Toppelberg(Harvard Medical School, MA) Arnstein Mykletun(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Henrik Daae Zachrisson(Norwegian Institute of Public Health)
9:2	2015.3.11	Rethinking early childhood workforce sustainability in the context of Australia's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reforms	Tamara Cumming(Research Institute for Professional Practice Learning and Education) Jennifer Sumsion(RIPPLE) Sandie Wong(School of Teacher Education Charles Sturt University)
9:3	2015.3.11	The evolu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in Hong Kong	Jessie M S Wong(World Organis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Nirmala Rao(Faculty of Education, The University of Hong Kong)
9:4	2015.5.9	The paradox of early intervention: families' participation driven by professionals throughout service process	Yoon H Lee(Department of Psychological, Organizational, and Leadership Studies in Education, Temple University)
9:5	2015.5.19	The way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equity - policies to tackle the urban-rural disparities in China	Xiumin Hong(Faculty of Education, Beijing Normal University) Peng Liu(Faculty of Education, BNU) Qun Ma(Faculty of Education, BNU) Xin Luo(Moray Hous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Edinburgh)
9:5	2015.6.3	Is it possible to promote executive functions in preschoolers? A case study in Brazil	Natália Martins Dias(Educational Psychology Post-graduation Program, UniFIEO) Alessandra Gotuzo Seabra(Developmental Disorders Post-graduation Program, Mackenzie Presbyterian University)

주요 간행물

호수	발행일	논문제목	필자
9:6	2015.6.4	Leaping the Language Gap: Strategies for Preschool and Head Start Teachers	Carolyn Davidson Abel(Department of Elementary Education, Early Childhood Research Center, Stephen F. Austin State University) Jannah Walters Nerren(Perkins College of Education, Stephen F. Austin State University) Hope Elizabeth Wilson(Department of Foundations and Secondar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and Human Services, University of North Florida)
9:7	2015.6.17	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 Reforms [2007-2013]: A Critical Juncture in Australi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Policy?	Helen Logan(Lecture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t Charles Sturt University) Jennifer Sumsion Frances Press
9:8	2015.7.3	Too Late and Not Enough for Some Open Access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Ecec) Program Usage Patterns in the Years before School in Australia	Timothy Gilley(Victorian Department of Education) Collette Taylor(Melbourn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he University of Melbourne) Frank Niklas(Melbourn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niel Cloney(Melbourn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9:9	2015.9.21	The 'Turn to Parenting': Paradigm Shift or Work in Progress?	Marit Hopman(Centre for Social Policy and Social Intervention Studies, Utrecht University) Trudie Knijn
9:10	2015.9.25	Uses and Perceived Benefits of Children's Recreational Activities: The Perspectives of Parents and School Professionals	Gaëlle Amerijckx(CRISS-Centre de recherches interdisciplinaire en approches sociales de la santé, and Perrine Humblet 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



▶ 세계유아정책동향시리즈

세계 주요 국가의 유아정책 동향 관련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분석하여 집필한 간행물로, 유아정책 연구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할 수 있다.

호수	발행일	제목	필자
15	2015.12	스웨덴의 유아정책(II): 교사정책을 중심으로	최윤경 연구위원 김윤환 Örebro 대학 박사후 연구원 이혜민 연구원
16	2015.12	아일랜드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최은영 부연구위원 장혜진 대구대 조교수 송신영 전문연구원
17	2015.12	핀란드의 유아정책(II)	이윤진 연구위원 정도상 핀란드연구소 대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2015
ANNUAL
REPORT**

IV

2016년도 연구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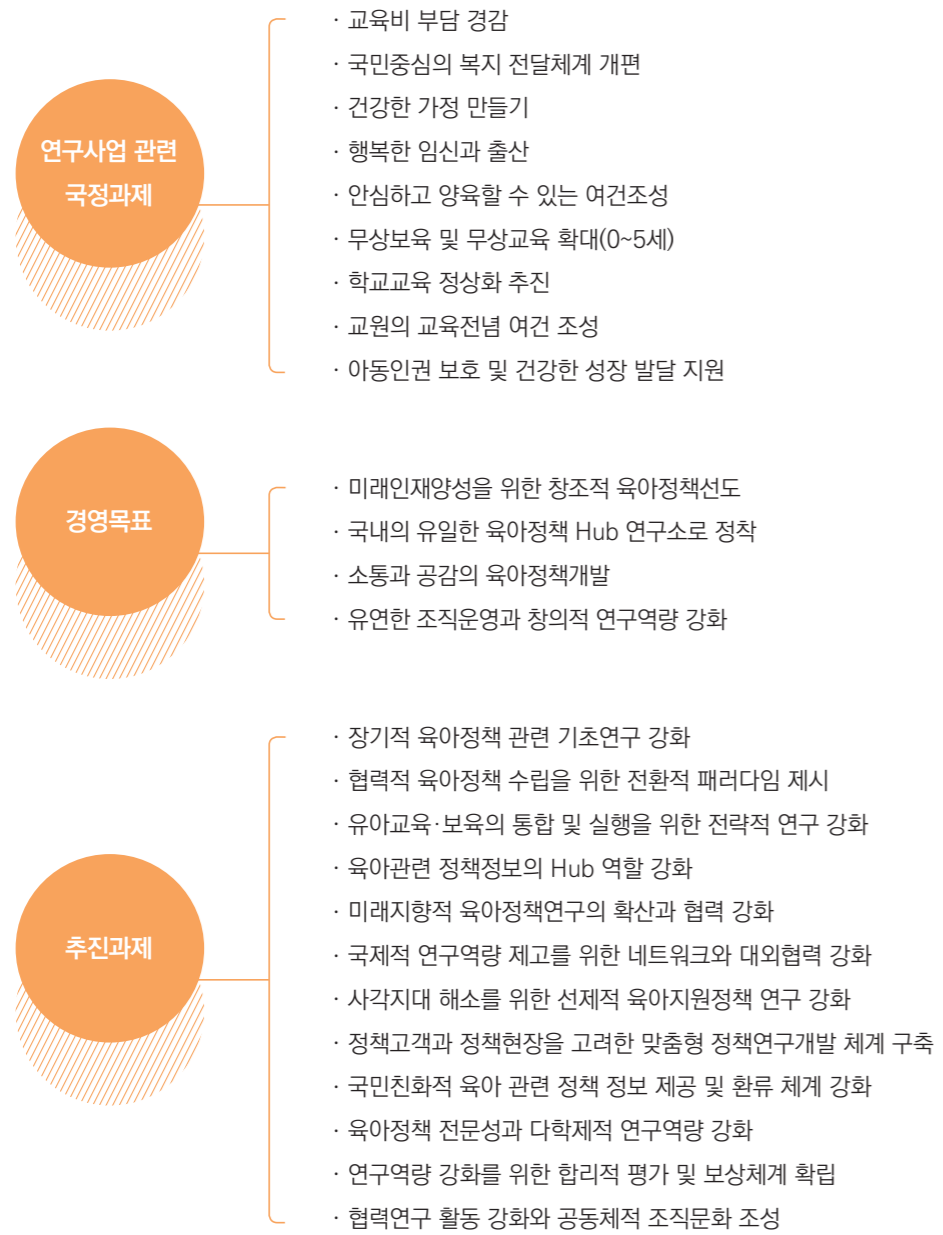
영유아와 부모가 행복한
육아정책의 실현을 위해
선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중점연구사업
2016년도 사업개요
2016년도 연구사업 총괄표

2016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중점연구사업



▶ 선정기준

1. 육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설립 목적 부합성
2.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현안인 유보통합의 성공적 안착 지원 및 예상되는 정책개발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
3.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의 조건이 되는 양질의 환경 조성에 기여
4. 다양한 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육아지원의 내실화와 재정 효율성 제고 기여도

중점연구사업명	요약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그간 기관 보육 위주의 확대 정책에 힘입어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영아의 기관 이용도 급증하였음. 그러나, 특히 영아기의 가정 내 양육의 바람직성과 중요성이 재조명 받으며, 기관보육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을 넘어선 가정 내 양육의 질 보장을 위한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그간 이루어진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의 가정 내 양육의 질 제고 효과와 개선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양질의 가정 내 양육을 담보할 수 있는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유보통합 정착을 위한 실행 방안 연구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의 3단계 이행전략이 2016년 완료될 예정이나, 추진방안 완료 후에도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통합 실행안의 구체화가 필요함. 본 연구는 유보통합의 성공적 이행과 착근을 위한 실행방안을 모색하여 이원화되어 있던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따른 유아교육, 보육 현장과 지원기관 및 학부모의 혼동을 줄이고 적응을 돕기 위한 다각적 실행방안 마련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13개 과제로 분절된 영유아 교육·보육의 통합 추진방안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안정적 실행 방안과 전략을 제시함.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II)	사교육 이용 연령이 점차 하향되고 있으며 영유아기의 사교육 이용의 발달적 측면의 부작용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영유아의 하루일과를 통해 가정과 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교육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활동을 포함한 부모 비용 부담의 공교육에 관한 광범위한 실태파악을 하고자 함. 이를 통해 사교육 및 사부담 공교육의 비용, 내용, 방법, 강사의 질적 기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VI):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실질적인 육아 활동이 일어나는 생활권역별 맞춤형 육아지원 환경의 개념을 정립하고,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공급되는 육아지원 환경을 파악하여, 육아지원 지표의 개발을 통해 평가하며, 육아지원 환경을 이용하는 부모의 만족도와 요구도를 조사함으로써 생활권역별 맞춤형 육아지원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2016년도 사업개요

기관고유사업

(1) 기본연구사업

과제명	개요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영아를 중심으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정 내 양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간 가정 내 양육 가구를 위한 비용 지원, 인력 지원, 부모의 휴가·휴직 지원, 지역사회 프로그램 지원 등 가정 내 양육을 지원 제도로 인한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인식 제고 효과, 가정 내 양육 활성화 효과 등을 분석하여 가정 내 양육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한 관리와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 공립유치원 등 공보육·교육 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공보육·교육 확충 정책을 평가하여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유보통합 정착을 위한 실행 방안 연구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 대한 3개년 3단계 로드맵이 2016년 마무리 됨에 따라, 이를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으로 구체화 하여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제시함. 통합으로 인한 급격한 제도 변화가 가져오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존에 부각되지 않던 특수한 조건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모색함.
영아 대상 기관보육 내실화 방안 연구 :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영아보육의 질적 수준에 주목하여 영아보육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과정적 질 관련 변인을 분석하고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영아보육 운영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한 후 영아대상 각 기관의 운영 모델을 제시와 함께 영아보육 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영유아 교육·보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	현재 제도적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에서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의 다양한 현황을 확인하고 각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영유아의 발달을 고려할 때 이론적·현실적으로 최적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산출하고자 함.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II)	영유아의 하루일과를 통해 가정과 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교육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활동을 포함한 부모비용 부담의 공교육의 비용, 내용, 방법, 강사의질적 기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 자녀양육지원시스템 구축·남한정착 초기단계 중심	북한이탈주민 가정에서 자녀양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초기단계인 하나원에서부터 교육·보육기관을 포함한 체계적인 육아지원시스템 구축을 모색하고자 함.

과제명	개요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저출산 요인으로 상대적으로 간과된 문화적 요인 즉 부모됨에 대한 인식과 출산 및 자녀양육관의 변화 양상과 대상별 차별화된 인식을 분석하고, 관련 요인 중 특히 제도적 요인을 포괄하여 규명함으로써 기존 아동돌봄정책 방향의 타당성을 진단하고,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의 정립 및 개선 과제를 제 제안함.
아동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양육환경과 뇌발달 연구	창의성의 특성과 창의성의 측정방법을 알아보고 실제 아동들의 창의성과 연결된 제 발달적 특성과 환경요인의 분석을 통해 향후 창의성 함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IV)	본 연구는 정부의 비용 지원이 영유아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부담 경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육아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가격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영유아 가구의 육아품목 소비패턴 반영을 위해 영유아 가구 소비실태조사를 시행하여 2016년 기준의 육아물가지수 가중치를 재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3-2016년에 따른 육아물가지수를 분석하고자 함.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며 '건강한 가정만들기'라는 국정과제 실행의 방안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 활성화를 모색함에는 실제 가정을 중심으로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과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함. 이에 기존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중심의 남성 양육 관련 선행연구와 차별하여 양육참여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에 초점을 두고 양육 참여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자녀의 연령에 따른 아버지 자녀 간 관계 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육아지원을 위한 시간정책의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영유아기 육아지원의 제 분야는 시간정책을 중요한 축으로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 육아지원정책이 부모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둬 따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부모됨의 균형있는 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시간 설계가 간과됨. 육아지원정책의 균형있고 실질적인 효과 제고를 위해 시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지원하는 시간정책의 도입을 육아정책에 제안하고자 함.
수시연구사업	정부정책 수립, 국내·외 동향분석 및 주요현안에 대해 연구함. ❖ 상반기 수시과제 목록 · 보육교직원 특별직무교육 개편 연구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마련 연구 · 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평가방안 보완 · 유치원 방과후 과정 효율화 방안 연구 · 공공형 사립유치원 운영 형태 관련 연구 · 다문화유치원 운영 실태 및 성과분석

2016년도 사업개요

(2) 연구관련사업

과제명	개요
KICCE 육아정책 토론회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육아정책 현안 발굴, 시의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 등 육아정책 추진의 실효성 및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학술활동 및 저널 발간	과제의 질 제고를 위한 워크숍과 세미나, 국내외 학술지 발간사업을 통해 직원의 전문성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학술정보자료의 지속적 관리와 공유 등을 통하여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위상 제고를 도모함.
국내·외 유관기관 교류 및 협력	'아시아지역 육아정책연구의 선도기관(The ECEC Hub of the Asia region)'이라는 중장기 비전 실현을 위하여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한 정책연구사업의 선진화와 전문화를 도모하며, 국제기구 및 유관해외기관과의 네트워킹 확대를 통하여 기관의 해외 인지도 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 육아정책관련 국제비교 협동연구 및 사업을 개발하고 기획함.
국내·외 육아연구 동향 및 정책 정보 수집 분석	국내외 육아정책 최신 연구동향 및 관련 문헌과 전자 정보, 자료를 수집·분석·보급함으로써 국내 육아정책 자료의 데이터 뱅크 역할을 수행함.

(3) 연구지원사업

과제명	개요
연구기획사업	연구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사회적 영향력 증대, 육아정책 전담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및 책무성 확보를 위해 기관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경영목표 추진·관리, 기본·수탁 연구과제 및 정부위탁사업 운영·관리·지원, 연구사업 수요조사 및 과제 발굴, 연구사업 관리 및 평가업무, 기관 자체평가 연구, 산·학·연과 연구협력 등을 추진함.
연구성과 확산 및 기관 홍보사업	연구사업 결과를 다양한 자료로 산출하여 정부부처, 육아관련 기관, 언론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정보를 공유함.
연구지원전산 운영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정보화 소프트웨어 및 전산관련 물품 등의 구매를 지원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지원함.

▶ 일반사업

과제명	개요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VI):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의 6차년도에 해당하는 연구로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실질적인 육아활동이 일어나는 생활권역별 맞춤형 육아지원 환경의 개념을 정립하고,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공급되는 육아지원 환경을 파악하여, 육아지원 지표의 개발을 통해 평가하며, 육아지원 환경을 이용하는 부모의 만족도와 요구도를 조사함으로써 생활권역별 맞춤형 육아지원 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둠.
'3-5세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2013년 누리과정 도입 이후, 성공적인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본 연구는 누리과정 운영 교사의 직업행복감, 취약영유아와 기관고유성을 고려한 누리과정 운영 적정화 방안,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 평가 및 누리과정 성과 평가 등의 핵심적인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과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 연구(IV)	2012년부터 시행된 전면 무상 교육·보육비용 제공 및 2013년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으로 인해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보육비용의 지출 변화가 예상됨. 본 연구는 연구 당해연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가계지출규모를 파악을 주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부지원금 유형별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교육·보육비용, 사설학원 등의 사교육비 등을 추정함. 또한 무상 비용지원 정책 시행 전·후(2011~2016년)의 가계지출변화와 지출결정변인의 변화추이를 분석하며, 가구·아동의 특성변인에 따른 비용지원정책 선호도 및 만족도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표준보육료와 교육비 산출 연구(IV)	표준보육료와 교육비 산출 연구 제4차년도 과제로,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정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보육비와 교육비 산출을 위한 항목을 선정 및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보육비용과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고자 함. 특히 보육비용은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시설규모 및 아동 연령별로 비용을 산출하고, 표준유아교육비는 유보통합을 대비하여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비의 산출모형, 산출방식 등을 비교하고, 공통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의 측면에서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고자 함.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I): 입양아 가정 양육 지원 방안	건강한 입양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현 상황에서 입양과정과 입양아의 양육 및 입양 가정 지원 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도출과 해결안을 모색함을 통해, 돌봄의 취약계층으로 고려되는 입양아와 그 가정의 지원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2016년도 사업개요

2016년도 연구사업 총괄표

과제명	개요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Ⅰ)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영유아기까지 사교육시장이 확장됨으로 인해 영유아의 건강한 식습관 및 균형 잡힌 신체 발달 형성을 위한 기회가 부족함. 따라서 영유아기의 식습관 및 운동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강 관련 교육의 조기 개입 및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시급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된 NASA의 Mission-X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유아의 신체건강 증진에 대한 학부모와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인식 및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유아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 연계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	평가 인증 결과에 연계된 컨설팅 매뉴얼 개발, 컨설팅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취약분야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상시적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함.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Ⅱ)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의 2차년도 연구로서 1차년도의 물리적 환경 안전에서 인적 환경으로서의 안전을 주제로 아동학대의 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영유아 학대를 다른 아동학대와의 차별성에 입각하여 원장과 학부모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학대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영유아 학대의 실태를 조사하여 예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Ⅱ)	빅데이터의 축적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이 출생 후 영유아기를 거쳐 아동기를 거치고 성장하면서 어떤 발달 특성을 보이는지, 가정에서의 양육과정, 기관 및 학교에서의 형식·비형식 교육 경험이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또한 그 자료를 축적하여 출산, 효과적인 양육 및 육아지원과 아동 발달에 대한 횡단적·종단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학계 연구의 활성화 및 실효성 있는 육아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등을 운영 및 유지보수함. 웹방화벽 및 접근제어 솔루션 구축을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함.
전산실 운영 사업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원활한 하드웨어 운영을 위한 운도를 유지함.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운영 유지함. 연구 자료 지원을 통한 연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학술자료 보강을 기본으로 육아관련 전문 자료 및 정보의 통합적 제공 서비스, 전자도서관 검색 고도화 사업을 진행함.
정보사업 운영	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보화 사업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문헌정보자료 운영'을 위함.

과제명	번호	연구 과제명
기본	1	가정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2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3	유보통합 정착을 위한 실행 방안 연구
	4	영아 대상 기관보육 내실화 방안 연구 :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5	영유아 교육·보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
	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Ⅱ)
	7	북한이탈주민 자녀양육지원시스템 구축: 남한정착 초기단계를 중심으로
	8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9	아동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양육환경과 뇌발달 연구
	10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Ⅳ)
	11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12	육아지원을 위한 시간정책의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일반	13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Ⅵ):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
	14	'3-5세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14-1. 영유아교사 직업행복감 증진 방안
		14-2. 누리과정 질 제고를 위한 운영 다양화 방안
		14-3.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
	14-4. 누리과정 실행 평가	
	15	영유아 교육, 보육 비용 추정 연구(Ⅳ)
	16	표준보육료와 교육비 산출 연구(Ⅳ)
		16-1. 이용시간을 고려한 보육비용 산출 연구 2016
16-2. 2016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17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Ⅱ: 입양아 가정 양육 지원 방안
18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Ⅰ)
19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 연계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
20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Ⅱ)
21	한국 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Ⅱ)	

2015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5 Annual Report

발행일 2016년 4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 화 02 398 7700
팩 스 02 730 3313
www.kicce.re.kr

편집·제작 경성문화사 (02 786 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